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해 주시...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크리스천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www.chpress.net

주후 2017년 10월 7일 (토) 제 1653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루터의 목회적 관심, 종교개혁 물꼬 트다!

9Marks, 밥 켈먼 박사의 개혁자이자 목회상담가로서 종교개혁 일으킨 루터 소개

루터가 일으킨 종교개혁을 한 번에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있다. 바로 루터가 태어나고 잠든 곳, 아이슬레벤(Eisleben)이다. 아이슬레벤 중앙 광장에 서 있는 루터의 동상은 여타 도시와 다른 포즈다. 대부분 도시의 루터 동상이 왼손에 자신이 번역한 성경을 들고 있는 모습인데 반해, 아이슬레벤의 동상은 오른손에 레오 10세 교황이 보낸 파문 칙서를 구겨서 들고 있다. 레오 10세 교황은 애당초 루터가 '95개 논제'를 제기했을 때만 해도 사태를 대수롭이 여기지 않았다. "루터는 술 취한 독일인이다. 술 깨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루터가 치켜든 횃불은 확산됐고, 교황은 말을 바꿨다. "주님의 포도밭에 뛰어든 멧돼지다."

교황의 표현처럼 루터는 불의에 저항하는 항거자(Protestant) 같이 저돌적으로 번역하고, 저술하고, 설교했다. 마침 보급되던 금속활자 인쇄술은 종교개혁의 날개가 됐다. 1500년부터 1540년까지 독일에서 나온 책의 3분의 1이 루터의 저서였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다. 설교는 루터의 또 다른 무기였다. 그가 평생 한 설교 중 현재까지 남은 것은 2300편에 이르며, 특히 1528년에는 145일 동안 195편 설교한 기록도 있다.

"교황이 누군가를 연옥에서 구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면 모조리 다 꺼내고 연옥을 폐쇄하는 것이 사랑의 도리 아닌가? 돈을 받고 술한 사람을 구원한다는데 거룩한 사랑으로 그곳을 텅 비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로마 교황을 정면으로 공박한 루터

1517년 10월 31일 수도사 마르틴 루터는 독일 북부 비텐베르크 성교회 문에 로마교황청의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는 '95개 논제'를 붙였다. 권위와 인습에 사로잡힌 중세에서 벗어나 서구의 근대를 여는 첫걸음이었다.

같은 날, 그는 마인대교구 추기경에게 자신이 왜 이처럼 무모한 항거를 벌이게 됐는지에 대한 편지를 보낸다. 이 편지 서두에는 자신의 양떼들이 겪고 있는 영적 혼란에 대한 경고 즉 도미니칸 수도사 존 테첼의 화려한 언변을 듣고 판매되는 면죄부의 부당성이 선명하게 부각된다. 루터는 "많은 사람들이 현재 엄청난 오해에 빠져있습니다. 저 불쌍한 영혼들은 면죄부를 살 때, 자신들이 구원된다고 믿고 있습니다"라고 썼다.

루터는 그리고 추기경에게 "이러한 영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기에, 저는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라고, 목회자이자 목자로서 개혁자로 나선 이유는 분명하게 밝혔다.

의 '논제'는 독일인들에게 큰 화제를 뿌렸다. 그렇다면 루터가 이처럼 사력을 다해 당시 절대적 지배자였던 교황에게 절대적으로 항거하면서 잠든 유럽을 깬 이유는 무엇일까?

밥 켈먼 박사(Dr. Bob Kellemen)는 루터의 항거이자 논박은 다른 아닌 "목회적 차원"에서 발동된 목회자이자 목자로서 자신의 양떼를 거처된 진리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다고 해석한다(Martin Luther: Reformer of Pastoral Counseling). 아울러 '복음연합(the Gospel Coalition, TGC)' 산하 온라인 매거진 '9Marks(www.9marks.org)'는 종교개혁 500주년의 의미를, 밥 켈먼 박사처럼 목회적 차원과 연결해, 목회자들에게 종교개혁자들이 어떻게 잠든 유럽을 깨우게 됐는가를 특집(The Reformation and Your Church : Fall 2017)으로 보도한다. 따라서 10월 한 달 동안, 그 중 엄선된 기고문들을 발췌, 번역해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고자 한다.

▲10/7: Martin Luther: Reformer of Pastoral Counseling, Dr. Bob Kellemen ▲10/14: The Bible Translation That Rocked the World: Luther's Bible introduced mass media, unified a nation, and set the standard for future translations, HENRY ZECHE Christian History ▲10/21: The Reformation's Restoration of the Sacraments, Bobby Jamieson ▲10/28: Four Ways the Reformation Changed Church History, Alex Duke



아이슬레벤에 있는 루터의 동상. 이 동상에는 루터가 오른손에 레오 10세 교황이 보낸 파문 칙서를 구겨서 들고 있다.

역사학자 맥네일(John T. McNeil)은 "독일 종교개혁에는 영혼들의 치유에 대한 관심이 그 시작부터 있었다"고 올바르게 지적한다. (3면으로 계속)



웨체스터교회연합부흥회에서 김성국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기사 9면]

"가슴으로" 이야기 들어줄 때, 소통과 공감 된다!

리더십저널, 가정사역전문가 게리 스멜리 박사의 관계형성 원리 소개

현대는 바야흐로 소통(疏通)과 공감(共感)의 시대다. 오늘날 사회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소통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한다. 소셜네트워크(SNS) 공간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은 이제 우리 삶의 한 부분이 됐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드러내며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자 애를 쓴다.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소통을 강조하고 공감을 위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불통(不通)을 호소하고 있다.

소통과 공감을 중시하는데 왜 소통의 부재를 경험하는 것일까? 이유는 너무 간단하다. 다른 이에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 언어를 듣는 행동만 할 뿐 그 언어에 담겨져 있는 진짜 메시지는 집중하지 않기에 상호 이해가 부족한 대화만 이어지게 된다. 결국 소통의 문은 잠기게 되고, 서로 건널 수 없는 강에서 서로를 바라본 채, 누군가 창을 열어주기를 소망하는 자세로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소그룹은 소통이 생명이라 할 수 있다. 구성원들 간에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소그룹의 나눔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마치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것처럼 구성원들이 서로 마음을 열지 않은 채로 걸을 뻔하고 있다면, 소그룹은 나눔이 실종된 피상적인 소그룹으로 전락하게 된다. 소그룹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소통과 공감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렇다면 소그룹 안에서 어떻게 소통과 공감을 이뤄낼 수 있을까? 가정사역 전문가, 게리 스멜리 박사(Dr. Gary Smalley)는 소그룹 안에서 소통과 공감을 통한 관계 형성에 이르는 원리를 말해준다. (3면으로 계속)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준학사 / 학사 석사 박사 수료증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D.Min), 교회음악학부(DCM-온캠퍼스)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워싱턴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시론 은희곤 목사 2면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5면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손상용 목사 7면	 청교도신앙 이윤석 목사 8면	 특별기고 정부홍 박사 16면
---	--	---	--	--

KIM Mission - 월드크리스천 무브먼트 한국어 세미나

(Perspectives on the World Christian Movement - 성경적, 역사적, 문화적, 전략적 관점에서 보는 세계선교)

KIM Ministry Mentors

 장동찬 목사 (NHC 디모데 필로사)	 김윤환 목사 (HS Ministry 디모)	 김승년 목사 (베른 뉴리빙스턴교회)	 박영배 목사 (CA NewLifeMission)	 손찬식 목사 (SD 삼일교회)	 전광성 목사 (NY NewCity교회)	 김용식 목사 (상해물영장교회)	 임재량 목사 (모친 영안, 크리스찬)
 김대영 목사 (이스라엘교회)	 Rev. Tony Hartman (SA Anglican Fellowship)	 바나바사김 선교사 (미국군군목)	 김정원 목사 (메트로교회)	 임이근 장로 (스페인, 라스팔마스)	 최도문 박사 (치과 의사, 달라스)	 강태원 장로 (비즈니스, NJ)	 이광현 장로 (JC Global, NY)
 황경규 집사 (미르교회, NY)	 손동우 박사 (비즈니스, NJ)	 이원기 안수집사 (신명교회, 서울)	 임재원 집사 (K&S 디모, 리모스)	 임소연 자매 (간호사, NY)	 강동철 집사 (비즈니스, AZ)	 이승권 박사 (미국 의사, TX)	 김중대 장로 (모친회, 필라델피아)
 김상익 장로 (WCF 토론토 회관)	 윤세범 장로	 최보람 권사	 윤천연 권사	 최인익 권사	 서수현 권사	 육진연 권사	 서덕희 집사

[업그레이드 된 퍼스펙티브스 -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 세미나]
KIM Mission이 지난 16년 간 미주와 전세계 선교지 및 한인 디아스포라를 위해 집중 보급해 온 미션 퍼스펙티브스2 한국어 세미나를 2015년에 전폭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타이틀을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 세미나]로 변경하였습니다. 우리 KIM Mission동역자들은 대부분 이 세미나를 여러 차례 수료하고 강의에 온 헌신된 평신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 세미나]를 북미주한인교회와 전 세계 디아스포라 한인사회, 그리고 여러 선교현지 선교사님들에게 찾아가 자비량으로 보급하고 섬깁니다.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운동 World Christian Movement 이 전 세계로 확산 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외치던 피터 왜그너 Peter Wagner 박사의 말을 기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라!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라고 외친 현대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의 좌우명이 우리를 독려합니다.

[제54기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 토론토 후속 세미나 수료식]
김 미션이 주최한 지난 2016년 3월의 제51기 미션 퍼스펙티브스 토론토 지역 세미나 (토론토침례교회)를 수료한 선교동역자님들이 스스로 후속 공부 및 증보기도 모임인 World Christian Fellowship in Toronto를 구성하고 지난 1년 6개월 동안 퍼스펙티브스 세미나 주교제 전부를 공부하면서 세계선교와 지역복음화를 위해 증보기도를 이어오던 중 이제 주교제 공부 대장정을 종료하는 수료기념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시 및 장소: 2017년 10월 16일(월) 저녁 7시, WCF본부
상: World Christian Fellowship in Toronto (회장 김상익 장로) 회원 전원, 제51기 토론토 세미나 (2016년 3월) 수료자 및 선교 관심 동역자
장 사: 바나바사김 선교사 (KIM Mission 대표, 미국군 예비군 군목, Chaplain Clinician; 자비량 선교사); 임재량 목사 (KIM Mission 사역멘토, 토론토 삶의 교회 담임, Interserve 선교사)

KOREAN INTERNATIONAL MINISTRIES (KIM MISSION) www.KIMMission.org
* 연락처: 김 미션 본부 (626. 354. 2294 혹은 213. 215. 9834), E-mail: 1020miracle@gmail.com

쿠르드족 독립, 중동의 또 다른 재앙 될 수 있다!

세계 언론, 유전 장악 독립 꿈꾸는 쿠르드족과 이라크, IS...삼국시대 형성 가능 보도

역사상 단 한번도 근대 민족국가를 형성해보지 못한 '비운의 민족'인 쿠르드족이 이번엔 독립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오랫동안 독립을 꿈꿔온 쿠르드족은 이번엔 강대국에 이용만 당하고 버려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최근 이라크 사태의 최대 승자는 쿠르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의 마수드 바르자니 대통령은 지난 23일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쿠르드인들이 미래를 직접 결정

할 시간이 왔다. 지금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며 "키르쿠크를 쿠르드로 귀속시키기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본격적으로 독립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지난 25일, 쿠르드족의 92%는 독립국가 설립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KRG)가 큰 승리를 거두긴 했어도 아직 갈 길이 멀다. 쿠르디스탄 독립이 유혈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바로 터키, 이라크, 이란의 견제로 이라크 내 쿠르드족 독립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허핑턴포스트는 이라크 중앙 정부와 국제 사회는 이라크 내 쿠르드족 독립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유럽발 기사를 통해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Post-Referendum, Kurds In Northern Iraq Might Be Heading For A Catastrophe: Turkey, Iran and Iraq have all threatened retaliation).

하이데르 알아바디 이라크 총리는 투표 전 '쿠르디스탄이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쿠르드족 젊은 세대들이 쿠르드족 독립투표 지지 시위를 하고 있다.

르드로부터 값싼 석유를 수입할 수 있게 됐다. 에너지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터키 정부에 쿠르드가 '기회와 투자의 땅'이 된 것이다.

하지만 쿠르드 자치정부의 독립 움직임이 주변국의 쿠르드족 독립운동으로 확대되거나 쿠르드족 대량 이주 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동 분쟁의 또 다른 뇌관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란과 시리아는 물론이고 터키 역시 가만히 보



시론

믿음을 사랑으로 보여달라!



은희곤 목사 (참사학교회)

톨스토이 단편선 '세 가지 질문'입니다. 한 왕이 인생에서 풀지 못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합니다. 1.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2.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3.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나라 안팎의 많은 학자와 신하들이 갖가지 해답을 제시하였지만 마음을 충족하게 할 답도 깨달음도 없었습니다. 급기야 왕은 지혜롭다고 널리 알려진 한 성자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마침 밤을 일구고 있는 그 성자에게 다가가서 답을 구했지만, 성자는 아무 대답이 없이 발만 일구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갑자기 숲 속에서 피투성이가 된 청년이 성자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왕은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정성껏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는 왕에게 가족들이 죽임을 당해 복수하고자 왕을

시해하려고, 궁으로 잠입했다가 왕의 군사들에게 다친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정을 들은 왕은 그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었습니다. 왕은 궁으로 돌아가기 전, 성자에게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을 다시 한번 물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성자는 이미 답을 나왔다면 왕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일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여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지금 왕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왕은 현자에게서 큰 깨달음을 얻고 기쁜 마음으로 궁에 돌아와 나라를 잘 다스려 칭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에게 정성을 다해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것이야말로 인생에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브라질 작가이자 크리스천인 "파울로 코엘료"는 말합니다.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 이제 더는 당신이 원했던 것들을 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작하세요.'" 그렇습니다. 신앙은 항상 "지금 여기에서"(Here & Now)입니다. 천국을 주목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5장은 3가지 소천국의 비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0처녀의 비유 2)달란트의 비유 3)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세 비유의 공통분모는 '갈라진다'입니다.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로, "착하고 충성된 종과 게으르고 악한 종" 그리고 "양과 염소"로 갈라집니다. 이것은 천국은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지만 아무나 들어가는 곳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준비"입니다. 신앙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니 항상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전에는 기도, 봉사 열심히 했다"가 아닙니다. "앞으로 기도, 봉사할 것이다"가 아닙니다. "지금 기도, 봉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지금' 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제는 "지금"입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은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땅에 파묻어 결국 있는 것마저도 다 빼앗깁니다. 그러나 착하고 충성된 종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보다 더 큰일을 맡기시며 더하여 주시는 성서적 축복'을 받습니다. 주님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항상 움직여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크리스천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는 말씀을 새기며, 내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크리스천에게는 "지금 사랑을 나누며 섬기는 일"입니다. 인생은 "주님께서 천국을 준비하기 위한 주신 마지막 기회이자 기간"입니다. 이 기회와 기간을 "지금", "착하고 충성된 종과 양"으로 잘 사용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일에 세계적 빈민촌중 하나인 필리핀 캄덴 마을에 들어가 20년 동안 사역한 홍성욱 선교사가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2016년 6월에 불과 3,000원의 전기세 미납으로 전기가 끊긴 작은 판잣집, 그 안에 3살, 2살, 3개월 아이 셋을 놓고 촛불을 켜놓고, 아이들이 나가지 못하게 밖에서 자물쇠를 잠그고 외출했던 부부, 얼마 지나지 않아 촛불이 넘어지며 불이나 3자녀는 현장에서 사망했고, 그 화재가 순식간에 빈민 판자촌 주변으로 번져 총 94가구가 불과 3시간 만에 모두 다 전소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 이후 그가 속한 기독교대한감리회(KMC)가 앞장서서 1년 만에 2017년 8월 총 52유닛의 연립주택을 완공했습니다. 근 1년 동안 나타난 사랑 나눔의 행렬을 듣는 내내 홍 선교사의 외침이 가슴에 진동으로 남습니다.

그가 외쳤던 한마디, "믿음을 사랑으로 보여 달라!" 바로 그 외침에 자기도 빈민이면서 집을 잃은 빈민을 위해 자기가 가진 것을 과분하게 바친 빈민촌 사람들, 감도만난 이웃의 아픔을 나의 도움으로 필요로 하는 이웃으로 바라보며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렬에 동참했던 수많은 크리스천들, 이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세기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에게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들에게 분명 "카보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가을의 문턱에서 마음껏 푸르름을 뽐내는 하늘 바라보며 캄덴 마을의 기적 "믿음을 사랑으로 보여 달라!"는 그 외침을 다시 한번 진동으로 품어봅니다.

pastor.eun@gmail.com

종교적 소수세력 쿠르드 크리스천, 미국보호 하에 "안전지대 제공받아야 한다" 국제사회에 호소

IS와의 전쟁 때문에 이미 부담을 겪고 있는 이라크 정부는 쿠르드 독립에 반대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투표 후 알아바디는 "우리는 이라크의 통합과 주권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라크 정부는 특히 이라크의 주요 산유지인 키르쿠크의 미래를 염려하고 있다. 키르쿠크에서는 쿠르드족 페시메르가 전사들이 강제를 보이고 있으며, 키르쿠크가 쿠르드 자치 지역에 들어오는 것은 2014년 이라크에서 ISIS가 부상한 이후의 일이지만 쿠르드족은 미래의 쿠르드 국가에 키르쿠크를 포함시키길 원하고 있다.

인접국인 터키와 이란 역시 투표 인정을 강하게 거부했다.

터키는 이라크 쿠르드족의 성공이 터키 내에서 쿠르드족 독립 운동을 강화시킬 것을 우려해 늘 이라크 내 쿠르드 독립에 반대해왔다. 그러나 터키는 쿠르드 자치 지역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상황이 바뀌게 될 수도 있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쿠르드족 투표가 터키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말하며, 군사 및 경제적 개입을 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25일에는 하부르 국경의 터키 군 병력이 보

강했다. 에르도안은 '우리는 밤에 갑자기 찾아갈 수 있다'며 경고했다.

이란 역시 이라크 북부와의 국경 병력을 강화했다. 이란 국가안보위원회는 24일 이라크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라크 북부로 들어가는 영공을 차단한다고 밝혔다. 술라이마니아와 이르빌로 가는 모든 항공편은 취소됐다. 아제르바이잔 서부와 쿠르디스탄의 이란 국경에서는 이란 혁명군이 군사 작전을 펼쳤다.

쿠르드 자치정부는 최근 이라크 치안군과 반군이 교전하는 틈을 타 중앙정부와 관할권을 다투던 유전지대인 키르쿠크 지역을 장악했다. 또 시리아 접경 마을인 라비아, 동남쪽 이란 접경 마을인 잘물라까지 점령하는 등 기존 자치구역 면적의 40%에 해당하는 영토를 추가로 확보했다.

2003년 사담 후세인 정권이 무너진 후 출범한 쿠르드 통합자치정부는 지난 10년간 착실히 국가의 기틀을 다져왔다. 실전으로 단련된 군조직 '페쉬메르가'는 20만-37만명에 달한다. 450억 달러에 달하는 석유매장량 덕분에 경제적 자립 능력도 충분하다. 전문가들은 쿠르드 자치정부가 독립에 성공

할 경우 세계 6위의 산유부국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영국 경제정보평가기관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EIU) 분석 결과, 쿠르드 자치정부의 '정치적 안정성'은 181개국 중 83위를 기록해 177위를 기록한 이라크 중앙정부보다 높게 나타난 바 있다.

쿠르드 독립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이란-터키 등 자국 내 쿠르드 독립운동을 철저히 탄압해온 주변국들의 반발이다. 하지만 쿠르드의 풍부한 석유매장량은 오랜 적마저 돌아서게 만들었다. 터키 집권여당인 정의개발당이 지난 13일 "이라크의 쿠르드족은 자기 결정권을 가졌다"고 밝힌 점은 미묘한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터키는 최근 완공한 키르쿠크-제이한 송유관을 통해 이라크 중앙정부를 거치지 않고도 쿠

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19살 쿠르드 청년인 칼레드 이스마일은 "나는 쿠르드 주권 국가에서 살고 싶다. 쿠르드가 발행하는 여권을 갖고 싶고, 쿠르드 국기를 단 국가대표팀이 월드컵에서 뛰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AP통신에 말했다. 그러나 쿠르드족의 독립을 마냥 반가워만 할 수 없는 또 다른 소수 세력이 있다. 바로 이라크 지역내 크리스천들이다.

크리스천티투데이는 쿠르드족의 독립 선언에 따른 국제사회의 역할 관계 변화에 따른 생존 때문에 쿠르드족의 독립이 오히려 중동지역 내 크리스천들을 더욱 압박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한다.

(13면으로 계속)

<p>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p> <p>·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323)665-0009(내선) (323)665-9025(광고국) · Fax:(323)665-0050(편집국) (323)665-0048(광고국) · E-mail: lachpress@gmail.com</p>	<p>■ 발행인 겸 편집인: 정영준 ■ 편집국장:유원정</p> <p>·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표) · E-mail: nychpress@gmail.com</p>
<p>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p>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p>학위과정 Degree Programs</p> <p>ESL Program</p> <p>Bachelor Degree Programs Business Administration, Music, Theology(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Aviation Management (General Aviation Management & Flight Aviation Management & Helicopter Flight, Flight Dispatcher, Flight Attendant: Cabin Crew)</p> <p>Master Degree Programs Counseling, Education, Music, TESOL, M.Div, MBA</p> <p>Doctoral Degree Programs Doctor of Music, Doctor of Leadership, Doctor of Ministry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p> <p>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2.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위취득 가능 3.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점취득 가능 	<p>2017년 항공학과 신설</p> <p>국제 항공기 조종사, 헬기 조종사, 항공 운항사, 객실 승무원 양성</p> <p>본교에서는 F-1 Visa 와 J-1 Visa 를 발행하며 집중영어교육(항공전문영어), 비행 조종 실습 및 항공사에서 인턴십도 가능합니다.</p> <p>J-1 VISA EXCHANGE VISITOR PROGRAM 미국 국무성으로부터 J-1 Visa Sponsor 허가</p> <p>Midwest University는 미국 연방정부 국무성으로부터 교환교수, 연구원, 교환학생을 위한 J-1 Visa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스폰서로 지정 받았습니다.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대학교수와 각 기관의 연구원, 공무원, 교사, 선교사님들은 안식년 동안 본교에 와서 연구나 강의를 할 수 있으며,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은 교환학생으로 본교에 와서 학점을 취득 하면서 동시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노동허가를 받아 인턴으로 미국의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p> <p>문의: 전화 (636)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p>
---	---

Midwest University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571) 730-4750 / Fax:(571) 730-4751
E-mail: wdc@midwest.edu

루터의 목회적 관심, 종교개혁 물꼬 트다

(1면에서 계속)

스프로울(R. C. Sproul) 역시 루터가 95개 반박문을 내건 이유는 바로 “목회적 관심”에서부터 기인했다고 간단명료하게 해석한다. 역사학자 타페르트(Theodore G. Tappert)는 좀 더 자세하게 이 점을 설명해준다:

“마틴 루터는 일반적으로 교황권을 부정하고 잡든 유럽을 깨우며 교회의 구조, 예배, 교육에 개혁을 일으켜 지금까지 서구 문명에 영향을 준 인물로 여겨진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가 무엇보다도 영혼들의 목자이자 목회자였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따라서 독일 종교개혁의 단초는 다름 아닌 루터가 관장하는 교구에서, 많은 사람들이 면죄부를 사면 자신들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잘못된 믿음을 바로잡기 위한 목자의 각성과 진지한 성찰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점을 알아야만 한다.”

루터가 이처럼 자신의 양떼들의 느끼는 영적 혼란과 두려움에 공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루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는 사탄과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렀기 때문이다. 어거스틴 수도원에서 그는 기도문도 열심히 암송했고, 자기 몸에서 귀신들을 축출하려는 소망으로 금식도 했고, 스스로를 채찍질하기도 했으며, 불을 지피지 않은 방의 추위도 견뎌냈다.

그는 매일 정질, 청빈, 순종, 금식, 철야, 그리고 금욕적 극기까지도 하면서 인간 스스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갖은 노력과 애를 썼다. 그의 몸이 망가져가고 있었지만 그것이 자신의 선행이 쌓여가는 증거인 것처럼 생각했다. 만약에 수도사 훈련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한다면 루터는 틀림없이 천국에 갈 정도로 엄격한 수련을 쌓았다. 그는 여러 수도사들 중 가장 열심히 수도사였다.

이처럼 루터는 자신이 구원 받는데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떠한 고행이라도 실천했다. 루터가 것처럼 몸부림치며 자신

의 죄를 보상에 보려고 했지만 이 모든 수고로 마음의 평안을 얻을 리가 없었다. 날이 갈수록 그는 인간의 구원문제에 대해 심한 갈등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 루터는 수도원의 엄격한 계율 속에서 기도와 찬송, 말씀묵상, 그리고 검소한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에 대한 확신을 얻고자 했다.

그러나 루터의 영혼에 대한 고뇌는 수도원에서 해결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몸부림은 더욱 심했다. 그는 불의했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두려움이 바로 면죄부로나마 구원에 이르려는 양떼들의 혼란과 비슷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좀 더 부연하자면, 루터는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는데, 즉 죄인인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이다. 그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의 의미를 완전히 깨닫지 못했다. 그리고 루터는 하나님의 진노는 알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알지 못했다.

루터의 자서전 작가인 오베르만(H. Oberman)은 따라서, 루터가 평생 동안 추구했던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갈망이 그를 성경적 신학자이자, 동시에 심리학적으로 검증된 목회자로서 나아가게 할 수 있었다고 해석한다.

따라서 우리가 평가하는 신학자이자 개혁자로서의 루터보다는, 루터는 항상 자신을 설교 즉 강단에서의 말씀 사역을 하는 목회자이자 말씀으로서 영혼을 돌보는 상담자로서 여겼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갈라디아서를 신학생들에게 가르치면

서 루터는 목회자의 소명을 분명하게 밝혔다: “만약 내가 말씀 사역자라면, 나는 설교하며, 상심한 자들을 위로하며, 그리고 성례전을 집행한다.” 루터는 절대로 설교와 상담을 분리하지 않았다. 둘 다 복음 중심이며 말씀에 기반한 사역들이었기 때문이다.

1528년 8월 15일, 스펡글러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루터는 동일한 메시지를 전한다. 성례전을 시작하면서, 루터는 하나님의 목회자의 역할과 소명을 말해준다: “성례전과 마찬가지로, 성도의 요구와 필요를 있을 때, 목회자는 설교해야하며, 위로해야 하며, 가난한 자를 도와줘야 하며, 그리고 병든 자를 심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루터에 있어서 성경만으로서 완전함은 복음서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승리와 동등하다. 그는 성경과 상담을 바로 십자가 신학을 통해서 보았다. 따라서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 즉 그리스도의 승리라든 복음을 날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항상 이러한 믿음을 연습하고 확장시켜야만 한다. 왜냐하면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리스도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루터는 복음서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로 상담을 펼치는데 있어 충분한 근거가 된다. 루터에게 있어, 상담의 목적은 “금식, 순례, 수도사가 되는 것, 선행 행위, 성례전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 신앙을 갖게 하고 신앙을 통해 솟아나는 사랑을 연습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결국 힘든 영혼에 대한 사역은 복음으로 이루어져주는 것이다.

결론으로, 목회자이자 목자의 마음을 가진 루터는 회중들이 겪는 영적 혼란을 바로잡고 치유하기 위해 결연하게 종교개혁의 최전선에 나서게 된다. 교회는 항상 상처 입은 영혼들과 고난에 빠진 사람들을 돌보는데 힘써 왔다. 루터는 목회적 상담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개혁했다. 자신의 양떼들이 겪는 일상에서의 상처와 영적 갈등들을 복음으로 보듬어 안고 나간 것이다.

삼았을 때, 친밀감의 꽃은 만개하게 된다. 개개인의 가치관과 기준을 판단의 잣대로 사용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철저히 이해하려 노력할 때 소그룹 안에서 소통의 창이 활짝 열리게 된다.

결론으로, 소통은 양쪽 모두 열려 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 한쪽만 열려있다면 소통은 일어날 수 없다. 소그룹에 속한 모든 구성원이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각자의 가슴을 열어야 한다. 대화 속에 숨겨져 있는 감정의 보화를 찾고, 역동성 속에서 과정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안전한 환경 가운데 상호 이해의 깊이를 더해갈 때 소그룹은 더 풍성한 소통과 공감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머리 대신 가슴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라. 그러면 여러분의 소그룹 안, 가정이건 친구 사이이건 소통과 공감의 꽃이 활짝 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가슴으로” 이야기 들어줄 때, 소통과 공감 된다!

(1면에서 계속)

첫째, 문장을 넘어 감정을 읽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이의 말에만 집중하고, 말 속에 담겨 있는 감정의 핵심을 파악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문장 속에 숨겨져 있는 감정을 파악해야 한다. 소그룹 구성원이 풀어놓는 말 보따리의 겉에서 메시지를 찾지 말고, 그 보따리 속에 숨겨져 있는 감정을 통해 메시지를 이해해야 한다. 진짜 메시지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감정이다. 마음으로 듣고 말할 때, 소그룹 안에서 소통의 열쇠를 발견하게 된다.

둘째, 역동적인 발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소그룹 내 대화는 계속해서 변화한다. 이 변화의 소용돌이 안에서 참 의미를 찾

아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부분을 발견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고, 목적이 아닌 과정으로 대화를 활용해야 한다. 대화의 장을 단순히 문제 해결이나 정보 전달을 위한 매개체로 보지 말고, 역동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역동적인 발견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구성원들 사이에 소통의 다리가 놓아지게 된다.

셋째,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한다.

의사소통은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좋고 그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소그룹 내에 서로의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각자의 느낌에 충실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 마련되면 자연스럽게 원활한 소통이 일어나게 된다. 안전을 최우선의 목표로

원로칼럼



박종순 목사 (충신교회 원로)

목사와 헌금생활(중)

그날 어머니의 기도를 다 기억할 수 없다. 그러나 “아버지, 죄인 자식을 용서하시고 주의 종 되게 해주십시오. 정직한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는 지금도 필자의 가슴에 살아 숨 쉰다. 그리고 그때 어머니의 두 눈에 고였던 눈물을 잊을 수 없다. 그날 버드나무 회초리와 어머니 눈물은 필자에겐 양약이었고 보화였다.

헌금의 진정한 의미

목사도 헌금을 해야 하는가? 해야 한다. 얼마나 해야 하는가? 양장 서야 한다. 십일조도 해야 하는가? 당연히 해야 한다.

1)십일조 이야기

필자의 경우 평소 드리는 모든 헌금을 합산하면 10의 3조나 10의 4조가 된다. 하루하루 먹고사는 것도 은혜이고 죄인이고 괴수이니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크기 때문에 드리고 더 드리고 싶다.

아이들에게도 십일조를 가르쳤다. 용돈도 십일조를 드리게 했고, 버스표, 아르바이트, 심지어 장학금도 십일조를 드리로 족 했다. 십일조는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느 날 갑자기 하려면 힘들고 액수가 커질수록 힘들어진다.

십일조는 최저 표준일 뿐 최고치가 아니다. 드릴 수만 있다면 십의 9를 드리고 10의 1만으로도 잘 사는 것이 복 받은 삶이다. 십일조를 드리지 못하는 핑계와 구실이 많아지면 안 된다. 개척교회에서라든지, 보조금으로 살기 때문이라든지, 아이들 양육비와 교육비가 턱없이 모자란다는 등등 얼마든지 비켜 갈 길도 있고 이유도 넘쳐난다. 그러나 십일조 신앙과 축복 신앙은 수레의 바퀴와 같다. 목사가 하지 않는 십일조를 어느 누가 따라 하겠는가? 그리고 어떻게 십일조 설교를 할 수 있겠는가?

2)특별헌금 이야기

짚아 보면 교회는 절기가 많다. 그리고 그때마다 헌금을 해야 한다. 송년, 새해, 고난주일, 부활주일, 가정주일, 성령강림절, 부흥회,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생일, 회갑, 결혼, 이사, 개업, 퇴원. 그뿐인가? 교회 신개축, 대지구입, 선교, 장학, 봉사 등 헌금해야 할 기회가 수도 없이 많다. 다양한 헌금의 기회와 조건들이 제한된 생활비로 생계를 꾸려 나가야 하는 목

회자에겐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은 교인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필자의 경우 언제나 헌금에 앞장섰다. 어떤 절기 헌금은 1년 동안 적금을 들어 했고, 액수가 큰 헌금 역시 계획을 세워 드렸다.

필자는 일평생 목회 기간 동안 생활비(월급) 투정을 해본 일이 없다. 그렇다고 교회가 알아서 거액의 연봉이나 활동비(판공비)를 준 일도 없다. 필자 내외는 한 평생 허를 즐기고 실을 채우는 가계부부 써야 했고 경제적으로 늘 쫓기며 살아야 했다. 그러나 필자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잘사는 사람보다 앞장섰고 많이 드리기 힘들었다. 돌이켜 보면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해냈는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헌금은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결단이며 열매다. 받은 은혜가 크면 크게 드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헌금은 열매를 드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드린 후 열매가 내 것으로 남았느냐로 낮낮이와 중량이 결정된다. 10억을 헌금하고도 300억이 남은 사람과 하루 5만원 버는 사람이 드린 50만원의 경우, 액면 자체는 10억이 크다. 그러나 헌금에서의 비중은 50만원이 더 크고 많다. 전자는 아직도 드릴 것이 남았고, 후자는 더 드릴 것이 없기 때문이다. 필자가 그토록 헌금생활을 중요시한 것은 받은 은혜가 컸기 때문이고, 교인들의 헌금 신앙과 삶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결과는 필자와 교회가 엄청난 복을 받았다.

3)일천번제 이야기

1999년 4월 부활주일 지난 화요일, 병원에 입원하여 정밀검사를 거쳐 위 절제 수술을 받았다. 큰 수술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전 세계 동역자들, 한국교회 성도들 그리고 충신교회 교우들의 기도로 죽지 않고 생명을 연장 받았다. 수술 후 단 한 차례의 항암치료 없이 회복되어 입원 15일만에 퇴원했다.

필자가 입원해 있는 동안 장로님과 권사님 중에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한다.

“하나님, 저희 목사님 살려주세요. 지금 데려가시면 안 돼요. 하실 일이 많이 남았 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대신 제가 갈게요.”

지금 생각해도 그 기도를 생각하면 눈시울이 붉어진다.

iamcspark@hanmail.net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GRACE THEOLOGICAL SEMINARY

- 1. 79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 3.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 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 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On Campus Courses

2017 가을 학기 강의 안내

Sept 18-22(9월 18-22일) DI 8150 Contextualization for Meaningful Ministry (의미있는 사역을 위한 상황화)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Sept 25-29 (9월 25-29일) DI 8170 Methods of Social Research/Research Design (사회조사방법론/리서치디자인)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Tom Stallter & Dr. Stephen Park

On Online Courses Courses (8 weeks)

온라인 강의(8주간)

Oct 9 - Dec 1(10월 9일-12월 1일) DI 8030 Intercultural Communication(교차문화 의사소통)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 Dr. Stephen Park

Off-Campus Courses

Seoul, Korea

Oct 30-Nov 3(10월 30일-11월 3일) DI Cross-Cultural Teaching and Learning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Nelson Jennings

Chicago, IL

Oct 23-27(10월 23-27일) PM 8061 Pastoral Counseling(목회상담)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Kwanjik Lee(이관직박사)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과목과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목장일기

기다림 밖에는 없습니다



김재열 목사
(뉴욕 센트럴교회)

결코 자랑을 위함이 아님을 천명 하면서 이 글을 씁니다. 19년을 기다렸던 비전랜드 새 예배당 입당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참 오래 기다렸다. 19년 밖에 기다리지 않았는데 이런 거대한 비전랜드를 이루어 주셨다. 21Ac(26,000평)의 넓은 대지에 6만 스퀘어피트의 예배당

과 교육관 실내체육관을 주셨다. 8차선 넓이의 언덕을 쌓고 6년생 이상의 소나무, 전나무, 향나무, 관상수와 화초를 심어 한 폭의 공원을 조성했다. 언덕 아래 산책길은 한 바퀴 걷는데 0.8마일(1.4km) 코스와 어린이 놀이터와 야외 농구, 정구장과 간이 축구장, 야외공연장과

6만 스퀘어피트 예배당과 교육관 실내 체육관과 3백대의 주차장으로 공사를 마무리했다. 운동 조족으로 뒤덮인 드넓은 대지에 온종일 풀어내는 스프링클러는 보는 이들의 마음을 싱그럽게 해주는 영화의 장면과 흡사하다. 종종 질문을 받는다. 어떻게 이

런 거대한 건축을 했나요? 대답은 그냥 '기다림'이라는 말밖에는 해 줄 대답이 없다. 그냥 기다렸다. 불평과 불만이 일어나도 기다렸고 모함으로 건축위원장이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아니 뎀 굴뚝에 연기가 나오다 기다렸다. 왜곡된 사이트의 편파적이고 누명을 씌우는 기사를 올려도 기다렸다. 부정적인 헛소문이 퍼져나가도 기다렸다. 검찰에 고발을 당해도 4년을 기다렸고 14년 만에 건축허가가 나왔을 때 6장로들의 반대에도 기다리고 기다렸다. 교인들이 반으로 줄어도 기다렸고 재정이 채워지지 않아도 기다렸다. 건축위원장이 6번 바뀌기까지 기다렸다. 엄두가 나지 않아도 기다렸고, 앞이 망망해도 기다렸고 적절할 건축회사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렸다. 길고 긴 기다림 끝에 하나님은 교회 건축 전문 회사를 준비해주셨다. 60년 동안 미국에 교회당만 1,800개를 건축한 로매스너 회장을 만나게 하셨다. 기다림 끝에 좋은 선물을 주셨다. 성경은 몽땅 기다림의 교과서임을 배웠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위해서 한 주간을 기다리셨다.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쓰실 수 있음에도 7일을 기다리셨다. 노아는 방주를 위해 120년을 기다렸고 아브라함도 약속을 얻기까지 25년을 기다렸다. 이삭도 리브가를 얻으려고 40세까지 기다렸고 야곱도 라헬을 얻기까지 14년을 기다렸다. 모세가 부르심을 받기까지 80년을 기다렸고 출애굽 백성들이 가나안

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을 기다려야 했다. 예수님도 구원을 이루기까지 인간의 몸을 입고 33년을 기다리셨다. 기다림은 막연히 시간만 보냄이어서는 결코 안된다. 지난 기다림 속에 약속의 땅에서 15,000년쯤의 기도가 있었다. 기다림은 인내이고 인내는 믿음이고 믿음은 소망을 가져온다. 우리는 지금도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지 않는가? 믿음은 낙심 중에도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다. 소망은 끝까지 이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갈6:9).
jykim47@gmail.com

푸/른/초/장

김기원 목사
(장위제일교회 원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생령으로 지으셨습니다. 생령은 육성과 영성이 있는 생물로 지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깨어있는 영성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영성, 건강한 영성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육체가 건강해야 되고 정신이 건강해야 되고 영성이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한 정신이 바로 깨어있는 정신이요 건강한 영성이 깨어있는 영성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몸, 나의 생활과 관계의식입니다(29).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분이요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는 영성입니다.

잠언 27장 22절을 보면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으로 찧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 미련한 자가 누구입니까? 영성이 깨어있지 아니한 자입니다. 잠자는 영성, 죽은 영성을 깨달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

자기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자는 쓰시되 포기하는 자는 쓰시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긍심이 생길 때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인식합니다. 여기에서 비전이 생깁니다. 희망이 생깁니다. 의욕이 생깁니다. 살맛이 생깁니다. 도망가지 않고 도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달은 자라야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게 됩니다. 결코 타인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높입니다. 남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판단하거나 무시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바로 예배적 삶입니다. 하나님께 그러지는 예배적인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내면적인 것은 ①하나님 말씀묵상입니다 ②기도는 기도, 지속적인 기도, 회개의 기도입니다 ③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마음의 각오와 생활입니다. 외면적인 것은 ①성실과 정직입니다 ②순종하는 삶입니다 ③봉사하는 삶입니다 ④섬기며 어울리는 삶입니다 ⑤생명을 사랑하며 천국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이 깨어 있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증거에 대한 열정입니다. 산 심령은 산 교회는 산 기관은 복음전파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헌신할 때 하나님은 건 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재능도 주십니다. 죽은 영성, 잠자는 영성의 소유자는 복음 증거의 열정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전도하자고 하면 앉아서 간섭만 하고 변론만 하고 허탄한 신화에기만 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는 영성 (로마서 8장 29-30절)

우리는 영성이 깨어 있지 아니면 잠든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영성에 대한 오해와 무지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유교의 명상훈련이나 불교의 고행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금식기도하고 철야기도하고 산상기도하고 깊은 묵상기도나 말씀묵상의 시간을 갖는 것은 고행의 길이 아니라 깊은 은총으로 가는 길이요 하나님과 일대일로 함께 있는 시간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는 고행의 수단이나 은총의 십자가요 구속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영성훈련이란 말은 영적 성장과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더 깊이 깨닫고 신앙의 향상을 위한 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영성에 대해 간단하고도 쉽게 그리고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깨어 있는 영성 즉 살아있는 영성이란 무엇입니까?

깨어있는 영성입니다. 성경에 많은 족장들이나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잠을 잘 때나 일 어날 때나 일을 할 때나 고난 중에도 기쁨 때도 슬픔 때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하고 계시를 믿습니까? 느낍니까? 그것이 바로 영성이 깨어있다는 증거입니다. 요셉이나 다니엘 또는 여호수아 모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식적 믿음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마음 속에 계시고 나의 생각을 움직이고 계시를 믿습니까?

나이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생명을 주셨습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지식도 재능도 물질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삶은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눈을 지으신 하나님, 귀를 지으신 하나님, 들으시고 계시고 보시고 계십니다. 마음도 보시고 생활도 보십니다. 그리고 목자가 양을 돌볼같이 돌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산다면 높은 자긍심을 가집니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나는 최고의 존재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나는 소중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자포

깨어있는 영성은 자기를 지으신 목적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그 목적대로 살게 됩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요 사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재능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건강을, 물질을, 생명을 연장해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깨닫고 사는 자가 깨어있는 영성의 소유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생활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오는 열매입니다. 순종은 최고의 사랑에서 나옵니다. 순종은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여기 자기 부인은 주체적 상실이 아니라 본래의 자기를 발견하는 정체성입니다. 세속적인 자기를 부인하고 영적인 자기를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김과 봉사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깨어 있는 영성은 예수를 믿게 하는 삶입니다(30).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심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게 하는 일은 예수를 증거하여 믿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를 증거하고 전도와 선교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깨어 있는 영성은 예수를 믿아가는 것입니다. 부부가 오래 같이 살면 점점 닮아 가듯이 신자가 그 영성이 깨어있다면 점점 예수를 닮아가게 됩니다. 왜 그럴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과 닮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무정하고 온유 겸손은 사전에 없고 섬김의 삶하고는 사둔 팔초도 넓은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 비난의 대상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자가 자기밖에 모르고 희생할 줄 모르는 삶을 살겠습니까? 영성이 깨어있는 자는 예수를 점점 닮아갑니다. 깨어 있는 영성은 날마다 성령 충만의 삶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감동에 순종합니다. 악령은 언제나 인본주의로 성령이 주는 생각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성령은 우리 몸이 의의 병기가 되어 윤리적으로 거룩하게 살도록 원하시고 도우십니다. 깨어 있는 영성은 언제나 생활 속에, 직업 속에, 가정 속에, 직장 속에 나타납니다.
(14면으로 계속)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www.rptse.com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 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군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특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모회사,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별 심사후 장학금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의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학과

대학부	신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대학원	목 회 학 석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기독교교육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문의처

Admission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장 영 춘 박사

법계 위의 속죄소

법계의 다른 이름은 언약과 증거이다. 하나님의 율법 곧 언약의 돌비가 보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두 돌판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증거하면서 인간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다. 언약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요구하는 것이다. 법계는 지성소에 보관되며,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를 상징하는 십계명 두 돌판과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싹 난 지팡이를 두었다.

법계를 덮고 있는 뚜껑을 속죄소 혹은 시온소라고 부른다. 죄를 씻고 은혜를 베푸는 의미가 있다. 속죄소는 카팔이라는 어원을 가지고서 '덮는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즉, 죄를 덮어 보이지 않게 함으로 마치 제거한 것처럼 간주하여 용서한다는 의미를 품고 있는 것이다. 영어성경에서는 자비의 자리(A MERCY SEAT)로 나타

건을 볼 수 있다. 벤세메스라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그곳을 지나가는 여호와와 법계를 구경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법계를 본 벤세메스 사람들은 그만 이성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순금으로 입혀 놓은 법계의 외양이 너무도 황홀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 속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 있을까?' 하고 앞을 닦고서 법계의 뚜껑을 열어보고 말았던 것이다. 그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법계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현장에서 다 죽었다. 죽은 사람이 5만70명이라고도 하고 그냥 70명이라고도 한다.

숫자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다. 중요한 문제는 바로 '코펠'이었다. 벤세메스 사람들이 '코펠'을 열었기 때문이다. 법계의 뚜껑이 '코펠' 곧 '속죄소'였다. 법계 속에는 율법이 있었다. 율법은 두려운 것이다. 죄인은 벌주고 죽이라는 것이 율법이다. 그 율법이 법계 속에 있고, 그 위를 속죄소가 굳게 덮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목적으로서의 공의가 이와 같이 잔혹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공평과 정의만을 생각한다면 서로가 소유권을 주장할 때, 그것을 둘로 나누는 것이 가장 합당한 처분이 된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율법의 생각을 사 용하여 더욱 근본적으로 지향하는 바를 나타낸다.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법의 목적이란 것이다. 율법을 드러내지만, 그가 칭하는 것은 율법을 뛰어넘는 생명의 생명을 향한 사랑을 믿었던 것이다. 그의 믿음의 반증이 무엇인가? 아이를 상대방에게 주라고 말하는 이에게, 오히려 아이의 생명을 맡겨주고, 아이를 나누어달라고 말하는 생명을 해치는 이에겐 생명을 빼앗는 것이다. 율법과 공평과 공정과 정의가 무엇인가?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목적에 합치되게 행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은 것이 아닌가?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해 아래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 다윗은 완전범죄를 꿈꾸었다. 그것이 가능할 줄 알았다. 너무나 치밀했고 그런 줄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모든 것을 드러내셨다. 다윗은 나단의 비유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침상을 적시는 회개를 통과한 후 회복을 경험한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제일 먼저 죄를 드러내어 지적하시며 회개를 요청하셨다.

밝히 드러나지 않음이 없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찌해야 하는가? 해아래 모든 것이 드러나지 않음이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 결국에는 모든 것이 밝은 빛 가운데 드러난다. 그러나 그 드러남이 목적이 아답에게 가족 웃을 임하시고, 다윗에게 회개를 통해 회복을 주셨고,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죄인들의 죄를 씻어 주신 것처럼, 살리는 방향으로 세우는 방향으로, 죄를 죄로 감지 하 니하고 덮고 가리우는 속죄소 뚜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과교회)



밝히 드러나지 않음이 없는 세상에서

-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삶

나며, 인간의 죄를 덮어 용서하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증거판을 껍 속에 넣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그분의 공의와 율법을 넘어서는 것임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율법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죄인들의 죄악을 당신의 아들의 보혈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가려주심으로 인생이 비로소 살길이 열렸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죄 많은 인생이 살고자 하면 반드시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

방주와 갈상자의 역정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갈대상자에 '역정'과 '나무진'을 칠했다. 역정은 물이 새지 않게 하는 방수제인데 노아의 방주에도 역시 역정을 칠했다. 이렇게 역정을 칠했기 때문에 방주도 갈상자도 물에 침몰되지 않았던 것이다. '역정'의 원어는 '코펠'인데 이것은 '카팔'(덮다, 속죄하다)이란 동사에서 왔다. 옛날 시골의 흙집에 살았을 때에 명절이 다가오면 어른들이 산에 가서 흰 흙을 파다가 물에 타서 벽에 발랐다. 그러면 지저분하던 흙벽이 하얗게 되어 깨끗한 것이 보기가 좋았던 기억이 있다.

성경에 '죄를 도말한다'는 말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죄악된 심령에다 칠하여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페인트나 도배지를 벽에다 붙이면 나서와 때 묻은 벽이 깨끗해지는데 이것은 '덮는다'(cover)라고 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덮어서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다. '역정'이 바로 그것이다. 역정을 칠했기 때문에 방주 안에 있는 생명들이 살았고, 이 역정을 칠했기 때문에 갈대상자 속에 있는 모세가 살았던 것이다. 만일 역정을 칠하지 않았다면 방주는 홍수에 침몰했을 것이고, 갈상자는 나일강에 빠져서 모세는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이다.

가리우고 덮으시는 주의 은혜
사무엘상 6장에서 놀라운 한 사

고(카팔)있었다. 율법의 저주를 덮고 있는 속죄소. 그래서 죄인이 그 앞에 가도 저주를 받지 않았는데, 벤세메스 사람들이 그만 범짓한 손으로 그것을 열어젖히고 말았던 것이다.

그때, 율법의 저주가 그 효력을 발휘하여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던 것이다. 오늘날도 율법의 저주는 여전히 살아 있는데, 복음이 그것을 덮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것이다. 방주에 칠한 역정 때문에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고, 갈상자에 칠한 역정 때문에 모세가 구원을 얻었고, 법계를 덮고 있는 속죄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날 율법을 덮고 있는 복음,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주의 은혜, 가리우고 덮으시는 주의 은혜이다.

율법의 공평과 공정과 정의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은 때에 솔로몬 왕에게 재판을 요구하는 두 여자가 나왔다. 그 여인들은 둘 다 직업이 창기였다. 그들이 한 집에 살았는데 삼일 간격으로 두 여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런데 삼일 늦게 아이를 낳은 여인이 잠을 자다가 그 아이 위에 누우므로 아이를 질식사시켰던 것이다. 그런데 그 여인이 몰래 자기 아이와 산 아이를 바꿔치기 하였다. 아무리 갓난아이지만 엄마들은 자기 아이를 금방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로인해 두 여인은 서로 산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다가 솔로몬에게 온 것이다. 솔로몬은 두 여인이 서로 산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니가 왕은 이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반씩 나누어 주라고 했다. 이것이 지혜의 왕 솔로몬 왕의 판결이었다.

율법은 두 아이를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다. 생명을 나눌지라도 그것이 공평하고 정의롭다. 물론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억제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다. 율법에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율법을 완수할 수 없다. 율법은 우리를 변명할 수 없게 만들어 절망 상태에 빠뜨린다. 그러나 율법의 약속은 무의미하지 않고 우리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는 없음으로 은혜아래에서 유익미한 빛을 드러내게 된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알리며 거울과 같이 우리의 죄 많음을 밝히 보이지만, 은혜의 가리워주심으로 생명을 얻고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

세상은 드러내고 또 드러냄

최근 한국의 적폐청산의 눈조가 강하다. 정치보복과 적폐청산으로 안보위기 속에서도 논쟁은 그칠 새가 없다. 소통이나 소통이냐? 각자 자기의 원하는 정치적 목적을 향해 부지런하고 지혜롭게 처세한다. 과연 세상은 그렇구나 하는 것을 세삼 깨닫게 된다. 잘못을 드러내고 또 드러내기를 원한다. 드러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자, 드러내므로 목적하고 지향하는 바를 생각하지 못한다. 그것이 또 다른 하나의 적폐를 만들 어낼 개연성이 충분한 논리와 방법을 사용한다. 차기, 차차기에는 또 다른 악순환의 연속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잘못은 잘못이다. 그러나 그 잘못을 드러내는 방향이 살리고 세우는 쪽이 아니라면 그것은 분명 또 하나의 적폐가 될 것이다. 세상이 그렇게 진행되어 오지 않았는가? 수많은 정치보복의 피흘림의 역사가 이를 반증하고 있지 않은가?

밝히 드러나지 않음이 없는 세상

성경은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고 말한다. 절대 밝혀지지 않을 것 같은 일들도 언젠가는 다 밝혀진다. 선악과를 먹은 후 죄에 빠진 자 먼저 한 것이 숨는 것이었다. 그러나 해 아래 드러나지 않는 것은 없다. 빛 되신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없도록 저들을 찾으셨다.

경과 같이 은혜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세상일에 무슨 은혜가 있는가? 아니다. 세상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조금이라도 카피해서 취할 수 있다면, 그 세상 안에 여호와와 하나님의 자비와 관용이 풍성할 것이다. 세상일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아니신가! 생각하며 기도한다. 복잡 분주한 세상일들,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정치와 파파 쪽으로 급변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과 조국이 사는 방향으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davidnjeon@yahoo.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장로교 신학생입니다. 장로교 운동은 교회사적으로 볼 때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요?
-나성에서 유 전도사

A: 16세기 이후 칼빈에 의해 장로교 운동이 일어났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으나 교회사를 깊이 연구해보면 장로교 운동은 사실 이미 칼빈이 나타나기 전에 피터 왈도에 의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교황권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패한 교회를 개혁하려는 운동이 리움의 부자상인 피터 왈도(Peter Waldo)에 의하여 일어났습니다. 왈도는 1173년 어느 날 마태복음 19장 21절을 읽는 가운데 회심하고, 말씀을 따라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을 번역하고 그것을 보급하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는 교회의 세속화를 주장하면서 성경만이 무오하며 인간에게 구원의 진리를 제공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에서 성경을 봉독하게 하였고 남녀설교자를 배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 것을 설교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로마교황청의 계급구조가 비성경적이라고 비난하고 연속설과 미사화체설은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예배에 있어 인위적인 요소를 전적으로 배제하였습니다. 세례를 베풀 때 십자가 표시를 한다거나 유아를 봉헌하는 일, 견신례(Confirmation)와 같은 것을 비성경적인 것으로 간주했고 금식일이나 축제일은 아예 인

장로교 운동은 1173년 회심한 피터 왈도에 의해 시작

정조차 하지 않았습니. 이 같은 왈도의 사상을 따르는 자들을 왈도파(Waldenses)라고 불렀습니다. 왈도파의 이 같은 개혁사상은 1220년에 작성된 왈도파의 신앙고백서(a confession of Faith of the Waldenses)에 잘 나타나는데 그 내용은 오늘날 장로교회의 신앙고백과 거의 일치하는 것이 특기할 만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밀러는 왈도가 중세시대의 진정한 장로교도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미 20세기 장로교인들이 믿고 있는 신앙과 교회 정치사상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오덕교 목사가 쓴 장로교회사를 보면 왈도파는 성경 66권만을 신앙의 유일한 기초로 인정하였고(3조) 예수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중보자라고 하였습니다. 연옥은 적그리스도에 의해 고안된 것이며 교회절기나 성자 숭배, 성수, 금욕기간 그리고 미사제도는 단지 인간적인 고안물이라고 하였습니다(10조). 세속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므로 그리스도인은 세속권을 경외하되 순종하며 세금을 바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14조). 이와 같은 그들의 신앙고백서를 통하여 개혁주의적 신앙을 이미 표현하였습니다.

왈도파는 교회의 권징과 교회에서 인정하는 장로교회의 2직분 사상을 이미 채택하였습니다. 그들은 교회직분을 장로와 집사로 구분하였고 노회 제도를 인정하였습니다. 장로는 회중이 추천한 후 당회에서 선거하여 장립식을 거쳐서 그 직무를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왈도파의 이러한 장로정치사상은 로마천주교회의 주된 공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왈도파는 1229년 교황 인노첸트(Innocent) 3세에 의하여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왈도파의 추종자들은 로마케토릭교회의 박해에 단이 되었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며 적어도 100만명이 로마교황청에 의해 죽임을 당했는데, 교황청은 칼이나 창으로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해하였고 남편이 보는 앞에서 아내의 가슴을 빨강게 달구어진 인두로 지져서 죽였습니다.

왈도파는 박해를 피하여 알프스의 남부 피트몬트 보헤미아, 심지어는 스페인에 피신하여 그들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이 시작되자 루터의 종교개혁을 찬성하였습니다.

사랑한인교회 부교역자 청빙

본 교회는 창립 33년 되는 LA 소재 교회로 투철한 소명과 이민 목회의 새로운 지평을 함께 열어갈 부교역자를 청빙합니다.

1. 부 목사님 (Full Time)

- 정규 신학대학원 이상 졸업자로서 목사 안수 받으신 분
- 40세 미만의 기혼자
- 한국어외 영어 소통이 원활 하신 분
-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자

2. Youth Group (중고등부) 전도사님 (Part Time)

- 정규 신학대학원 졸업자나 재학중인 분
- 영어 설교 가능하고 이중 언어 가능하신 분
- 체류 신분이 합법적인 분

3. 찬양 리더 (Part Time)

- 찬양에 탁월한 재능이 있는 분으로 기타나 키보드로 찬양 리더가 가능한 분.

제출서류

1. 이력서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본인 및 가족 사진)
2. 자기 소개서 (신앙 간증 및 목회 소망)

제출기한 및 방법

1. 제출서류 마감: 11/20/2017 까지
2. 제출처: 사랑한인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2801 W. Temple ST., LA, CA 90026
담당목사: 하 재식
3. Email: lk0085@sbcglobal.net

사랑한인교회 담임목사 하재식

종교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도의 다트키 브힐(Dhatki Bhill)



다트키 브힐 또는 타르(Thar)족 대부분이 파키스탄의 "상하르" 지역과 "타파카" 지역에 거주하기는 하나, 대략 15000명가량은 인도에 살고 있다. 다트키 브힐족은 좀 더 큰 종족집단인 브힐족에 속하는 종족이며, 브힐족은 인도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부족이다.

다트키 브힐족은 힌두교의 카스트 제도 안에서 "불가촉천민"으로 분류된다. 브힐족은 인구의 65% 가량이 이슬람교도인 "다트키 브힐"족과 또 다른 힌두교도인 "브힐"족으로 구별된다.

힌두교와 이슬람교 간의 오랜 반목으로 인해 1947년 이슬람교도들은 인도 왕조로, 대부분의 이슬람교도들은 파키스탄에 편입돼 분리된다. 소수의 다트키 브힐족 가운데 이슬람교도들이 파키스탄으로 이주하지 않고 인도에 남았다. 1965년

삶의 모습

브힐족은 드라비다어로 "bille"라는 호칭으로 불려졌는데 이것은 "활"이라는 의미로서 부족의 호전적인 성향을 의미한다. 브힐족은 매우 다혈질적이고 활과 창을 잘 사용하는 부족으로서 최근까지도 이방인들은 그들의 마을에 접근하는 것을 꺼려했다. 브힐족의 거주지는 라자스탄 지역의 서쪽 지대로 항상 건조하며 강수량이 적어 식수가 부족한 지역이다. 비가 조금만 더디게 내린다면 그들은 기근이 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브힐족은 숙련된 농부이며 노동자, 그리고 순찰꾼으로 살아가고 있다. 주민들이 소유한 땅은 매우 작고 척박하다. 그들은 소작인처럼 일하며 가족의 먹이로 풀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다트키 브힐족 마을은 멀리 흩어져 있으며, 각각의 집들은 개인 소유의 땅에 지어졌으며 밀, 옥수수 등의 약간의 곡물을 재배한다. 이들은 씨족사회로 친척결혼이 금지된다. 만일 친척 간에 결혼을 했을 경우 온 가족의 신분이 박탈당하면서 그들보다 높은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 각 마을에는 마을의 우두머리가 있어 분쟁을 조정하거나 가솔, 유괴, 싸움 같은 사건들에 관여한다. 남자들은 재산을 똑같이 나누며 절대적인 권한을 누리다. 다트키 브힐족의 사회는 모두 신

분사회다. 힌두교도의 사회 신분제도는 이슬람 사회와는 달리 순결과 불결의 개념이 따로 없고 종교적 이상 또한 따로 없다. 이슬람 계급에는 "SAYYIDS"의 상류계층과 "SWEEPERS"의 하류계층이 있다.

이슬람의 신분제도는 대략 7개 층으로 분류되는데 신분의 서열은 세습되며 지주, 관리, 성직자, 장인, 농민, 목동의 순으로 나누어지며 그 밑의 최하위층의 사람들은 경멸을 받는다.

신앙

브힐족은 힌두교도이고 다트키 브힐족은 이슬람 부족이다. 1480년 브힐족이 이슬람교도들에 의해 침략을 당하면서 부족층 상당수가 이슬람교로 개종한다. 나머지 개종하지 않은 부족들은 인도 중부의

고지대 깊숙이 피신했다. 다트키 브힐족 가운데 일부는 브힐족과 인접한 팽야지대에서 서로 교류하면서 살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상류층 계급의 사회적, 문화적, 관습을 받아들여 여성들은 "푸다"라는 얼굴 가리개를 착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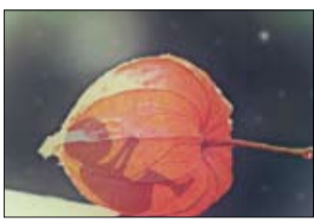
필요로 하는 것들
다트키 브힐어로 번역된 성경과 복음을 전할 선교사가 없다. 예수님의 영화나 라디오 방송 같은 기독교적인 자료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다트키 브힐족 가운데 복음은 거의 전해지지 않고 있다.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선교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아일랜드 '낙태금지헌법' 개정 국민투표

아일랜드가 낙태 금지를 규정한 헌법의 개정을 두고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AFP통신, AP통신 등이 26일 보도했다.



리오 바라드커 아일랜드 총리는 이날 의회에서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엄격히 낙태를 금지하는 헌법을 개정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시민의회의 보고서를 반영한 개헌안이 의회를 통과한 뒤 내년 5월이나 6월에 국민투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시민의회는 수많은 증언과 1만3000건이 넘는 제안을 받아 보고서를 작성했다.

가톨릭 국가인 아일랜드에서는 1983년 개헌을 통해 낙태가 금지됐다. 임신부의 생명이 위중한 경우만 낙태가 허용된다. 불법 낙태를 할 경우 최고 14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해외에서의 낙태는 허용해 매년 아일랜드 여성 수천명이 낙태를 위해 영국 등으로 가고 있다.

바라드커 총리는 헌법에 규정된 낙태금지법이 지나치게 강압적이라는 입장을 자주 밝혀왔다. 앞서 유엔인권이사회의(UNHRC)도 아일랜드의 낙태 금지법이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라며 개정을 촉구한 바 있고, 유럽평의회도 인권기구도 치명적인 태아 기형이나 강간으로 인한 임신 등의 경우 낙태를 허용할 것을 주문했다.

현지 여론조사에서는 다수 유권자가 낙태금지법 폐지 및 완화를 지지했다. 다만 이들이 모든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나타났다.

충격범 패독은 외로운 늑대...범행동기 아직 몰라

지난 1일 최소 59명이 숨지고 527명이 다친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난사 사건은 '외로운 늑대'(자생적 테러리스트)의 소행으로 보이나 아직까지 범행 동기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클라크 카운티 보안관 조 롬바도는 "현재까지 외로운 늑대 공격자의 단독범행으로 보고 있다"며 "더 이상의 공격 위협은 없다고 확실한다"고 말했다. 그는 "범행 동기를 알려주는 증거를 못 찾았다"며 "용의자의 총격 당시 신념체계가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테러센터 여러 곳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네바다주 하원의원 루벤 키원(민주당)도 "수사당국이 총격 용의자 스티븐 패독(64)의 자택을 수색해 그의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있지만 아직 범행 동기에 대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패독은 사건 당일(1일) 최소 23점 이상의 무기를 갖고 라스베이거스의 만달레이 베이 호텔 객실에 있었다. 범행에는 기관총처럼 자동연사가 되도록 개조한 라이플을 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라스베이거스에서 130km 떨어진 메스키토에 위치한 패독의 자택에서 19점의 무기와 실탄 수천발, 폭발물 제조에 사용되는 질산암모늄 등이 추가로 발견됐다.

패독은 호텔 방에 경찰특공대가 들이닥치기 직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패독의 동생 에릭은 "내가 아는 한, 형 스티븐은 백인우월주의자 단체를 비롯한 정치적 조직이나 종교 단체에 가입한 적이 없다. 그저 게임에서 포커를 즐기고 크루즈 여행을 다니며 타고 가게에서 샌드위치를 즐겨먹는 사람일 뿐이었다. 그런 형에게 엄청나게 잘못된 일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라스베이거스 충격범 아버지, 사이코패스 은행강도

라스베이거스 총기 난사범은 은퇴한 회계사로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그의 아버지가 유명한 은행강도였던 것



으로 드러났다.

2일 CNN에 따르면 라스베이거스 음악 축제장에 무차별 총격을 가한 스티븐 패독(64)은 과거 회계사로 일했다. 패독의 형제 에릭은 패독이 수중에 돈이 많았다며 "유람선에서 비디오 포커를 즐길 정도로 부유한 사람이었다"고 전했다.

에릭은 패독이 1-2주 전 어머니와 전화통화를 했고, 최근 자신에게도 문자메시지로 안부를 물었다고 말했다. 패독은 한때 결혼했지만 이후 여자 친구와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녀는 없었다.

패독은 라스베이거스에서 북동쪽으로 약 128km 떨어진 메스키토 지역에 거주했다. 이곳은 주민 수가 약 1만8000명으로 은퇴자들이 주로 산다. 에릭은 1년 전 패독이 플로리다 주 멜버른에서 메스키토로 이사하는 것을 도와줬으며, 당시에는 패독이 기관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에릭은 새벽 1시쯤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고 총격 사건에 관해 알게 됐다 고 했다. 그는 패독이 왜 사람들을 죽인 건지 알 수 없다며 "스티븐은 나의 형제다. 소행성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패독은 전날 밤 투숙 중이던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 베이 리조트 앤 카지노' 호텔 32층의 방에서 1반대편의 음악 축제장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 이 사건으로 최소 58명이 숨지고 515명이 다쳤다.

패독이 총기 난사 직후 호텔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는 별다른 범죄력이 없으며 경찰 수사망에도 올라가지 않았다. 총기는 합법적으로 구매한 것으로 보인다.

패독에 관한 특이사항은 아버지의 범죄전력 뿐이었다. 에릭은 아버지인 벤자민 호스킨스 패독이 유명한 은행 강도인 연방수사국(FBI)의 10대 수배자 명단에 든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아버지가 이미 몇 해 전 세상을 떠났고 형제는 아버지를 잘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폭스뉴스 등은 1969년 FBI의 탈옥자 수배 포스터에 벤자민 패독이 등장했다며, 그가 사이코패스 진단을 받았으며 자살 충동을 느끼는 위험한 인물로 묘사돼 있다고 보도했다.

자선도 세대차...밀레니얼 세대, 기부보다 착한 투자

큰 부자(슈퍼리치)들이 좋은 일에 돈을 쓰는 방식에는 세대 차이가 있다. 부모 세대는 전통적인 자선·기부를 선호하고 자식 세대는 선한 사업에 투자하는 방식을 더 좋아한다. 부모 세대의 대표적 기부 클럽이 '더 기빙pledge'(The Giving Pledge)'라면, 자선과 투자의 절충을 지향하는 자식 세대의 대표 단체는 '더 임팩트(The Impact)'다.



더 기빙pledge는 2010년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와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이 재산을 사회에 환원키로 약속하면서 만든 세계 부호들의 기부 클럽이다. 생전이나 사후에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하면 회원이 될 수 있다. 현재 21개국에서 168명의 슈퍼리치가 동참하고 있다.

더 임팩트는 2015년 미국 석유재벌 록펠러 가문의 후손 저스틴 록펠러(38)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단체다. 전 세계 슈퍼리치 중에서도 밀레니얼 세대(1980-2000년대 초 출생) 위주로 125명이 가입해 있다. 하얏트호텔 상속녀 리셀 시먼스, '자동차 왕' 헨리 포드의 후손 제이슨 포드, 미 의료장비 재벌 제임스 소렌슨의 아들 짐 소렌슨 등이 핵심 멤버다.

더 기빙pledge에는 아직 한국인 회원이 없지만 더 임팩트에는 있다. 정경선(31) HG이니셔티브 대표가 공동설립자로 참여하고 있다. 정 대표는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의 아들이면서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자의 손자다. 그는 비영리 사단법인 '루트 임팩트'를 통해 서울 성수동에 소셜벤처(기업활동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벤처) 입주공간을 조성, 운영하고 있다.

더 기빙pledge와 더 임팩트는 세계 부자들이 법적 구속력 없는 약속으로 참여한다는 기본 구조는 같다. 하지만 더 기빙pledge는 기부 약속, 더 임팩트는 투자 약속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더 임팩트의 투자 방식은 단체 이름과 같은 '임팩트 투자(Impact Investing)'다.

재무적 수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사회·환경적으로 측정 가능한 긍정적인 영향도 창출하는 자본 투자를 뜻한다.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에 투자해서 수익도 내는, 자선과 투자의 절충형이라고 할 수 있다.

홍콩에 사는 더 임팩트 회원 파울로 프레시아는 특권을 가진 자로서의 책임을 이야기했다. 그는 "부(富)를 3대에 걸쳐 물려받은 건 엄청난 특권"이라며 "기후 변화, 소득 불평등, 인권 개선 등 세계가 직면한 문제들과 씨름하는 일에 자본을 투자하는 데는 책임이 따른다"고 말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 계열 자산관리회사 US트러스트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젊은 슈퍼리치가 임팩트 투자를 선호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US트러스트는 투자가능 자산이 300만 달러 이상인 미국의 부자 8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다. 이들을 사일런트 세대(1925-45년 출생), 베이비부머(46-64년생), X세대(65-70년대 후반), 밀레니얼 세대로 구분했다.

조사 결과 베이비부머와 사일런트 세대 슈퍼리치는 기부를 선호하는 비율이 80%에 달했지만 밀레니얼은 36%에 그쳤다. 반면 공익에 기여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 즉 임팩트 투자를 선호하는 비율은 밀레니얼 부자가 32%로 가장 높았다. 베이비부머와 사일런트 세대는 14%에 불과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선호도 역시 밀레니얼이 압도적으로 높고 나이든 세대로 올라갈수록 낮아졌다.

미 통신서비스기업 AOL을 창업한 스티브 케이스의 부인이자 더 임팩트 공동설립자인 진 케이스는 "부자 가문의 젊은이들은 단순히 수익만 노리는 옛날 방식을 거부하고 개인자본이 공익을 위해 사용되는, 이전과 다른 방식을 지향한다"고 말했다.

美·中, 대북 압박과 대화 공조 신호탄?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미국이 북한과 중국 등에 대해 압박 수위를 낮추고 대화 모드로 전환하려는 분위기가 두드러지고 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과 대화를 원한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표명했고, 중국 측을 최대한 배려하는 태도를 보여 북·미 및 북·중 간 모종의 기류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물론 오는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단순히 사전 분위기를 타진하는 차원일 수 있지만 다자 간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대화 움직임도 결국은 북한의 의중에 달린 것이어서 실효성 있는 대화의 자리가 마련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틸러슨 장관은 지난 30일 베이징에 도착한 뒤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에 이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차례로 만남을 가졌다. 그는 중국의 신경을 건드리는 압박성 발언을 자제하며 대화 상대를 배려하려는 태도를 나타냈다고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들이 평가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 문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고,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나 미국의 대중무역 적자 등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주제도 피하는 등 절제된 행보를 보였다.

특히 틸러슨 장관이 시 주석과 회동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화를 나눌 의사가 있는지 타진하고 있다"고 밝힘에 따라 중국과 모종의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 관측도 나온다. 미국은 최근 북한을 전방위로 압박하며 군사충돌 우려까지 제기될 정도로 극단적인 대처 상태를 이어 왔다. 중국도 미국 주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 명분으로 대북 교역과 금융 거래를 잇따라 차단한 데다 자국 내 북한 기업들에 '120일 내 폐쇄' 명령을 내리는 등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양국이 대북 압박에 공동보조를 취하는 상황에서 틸러슨 장관이 '북한과의 대화'를 거론한 것은 적잖은 의미를 갖는다. 압박뿐 아니라 대화에서도 미·중이 보조를 맞추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늘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기본 원칙을 고수해 왔다. 문재인정부 역시 '한반도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 방중을 앞두고 미국이 대화 분위기로 돌아선다면 한반도 정세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뿐 아니라 중국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인 데다 아직 협상에 관심이 없는 분위

역서 대화를 통한 해법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북한에 양보할 의사가 없다고 공언한 트럼프 대통령이 적절한 당근책을 제시할지도 회의적이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핵에 대한 집착도 꺾기 힘들다는 관측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핵 보유를 정권 유지의 핵심 원천으로 보고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 중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 카드를 꺼내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대화의 결실물이다. 대북 초강경 모드로 시나리오화한 아베 총리는 북·미 대화를 달갑지 않게 보고 반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페인 카탈루냐 분리 투표 후 혼돈 속으로

스페인으로부터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카탈루냐 지역의 노동자와 시민들이 스페인 정부의 강경 진압에 반발해 총파업에 나섰다.



3일 엘파이스 등 스페인 언론들에 따르면, 바르셀로나와 지로나 등 카탈루냐 주요 도시의 자치정부 공무원들과 대기업 근로자를 중심으로 주요 기업체 노동자들이 일제히 하루 총파업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일터를 떠난 노동자와 시민들은 바르셀로나 등 대도시의 주요 도로들과 광장에 속속 집결해 반정부 집회를 열고 "스페인 정부가 경찰을 동원해 평화적인 투표를 원하는 시민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했다"고 주장하며 분리독립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1일 카탈루냐 분리독립 주민투표는 스페인 경찰이 투표함과 투표용지를 압수하는 등 물리력으로 저지한 가운데 치러졌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면서 시민 800여 명(자치정부 집계)이 다쳤다. 스페인 측도 일부 시위대가 경찰에 폭력을 행사해 경찰관 12명 이상이 다쳤다고 주장했다.

카탈루냐 자치정부 측은 투표 잠정결과 결과 90%의 압도적 찬성률로 투표가 가결됐으며 최종 결과가 나오는 대로 스페인으로부터의 독립을 선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스페인 정부는 "애초에 투표 자체가 법적인 정당성이 전혀 없다"면서 자치권 몰수까지 경고하는 등 갈등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이날 카탈루냐 지방의 총파업으로 바르셀로나 지하철과 버스 운행이 출근 시간을 제외하고는 전면 중단됐으며, 택시 조합도 파업에 동참하면서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묶였다. 시민과 노동자들은 바르셀로나의 주요 간선도로도 점거한 채 집회를 열어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졌다.

카탈루냐 분리독립을 주도한 자치정부와 공공부문 근로자들은 물론, 이 지역 각급 학교들과 미술관, 박물관, 프로축구 클럽 FC 바르셀로나 등도 카탈루냐 분리독립 투표를 물리력으로 저지한 스페인 정부를 규탄하며 총파업에 동참했다.

한편 2014년 치러진 첫 주민투표에서도 유권자의 80% 이상이 분리독립에 찬성했지만 투표율이 32%로 저조해 독립이 좌절된 바 있다.

노벨물리학상 연구 주제, '중력파'는 무엇?

지난해 2월 세계 물리학과는 중력파의 존재가 처음으로 확인됐다는 소식에 흥분에 휩싸였다. 당시 연구원에서 중력파를 확인한 킵 손 캘리포니아공대(캘텍) 명예교수 등 3명에게 3일 노벨물리학상 수상의 영예가 주어졌다. 중력파 확인 사실을 발표한 지 약 1년 8개월만이다.



중력파는 무엇이고, 어떤 점이 중요해서 과학계가 열광하는 걸까? 중력파는 별의 폭발 등 질량이 큰 물체의 급변으로 인한 에너지의 변화가 파장으로 나타난 것이다. 태양계에 지구나 달 등의 천체는 평소 질량에 큰 변화가 없다. 하지만 먼 우주에서 별이 폭발하거나 블랙홀이 충돌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면 별의 질량에 큰 변화가 나타난다. 이는 시공간이 일그러지는 효과로 이어지고 이런 변화가 중력파로 검출되게 된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100년 전 예견한 중력파의 실체를 확인한 레이저 간섭계 중력파 관측소(라이고·LIGO) 연구진에게 올해 노벨물리학상 수상의 영예가 주어졌다.

안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SEED선교회 연구실장)

대부분의 교인들이 청년이었음으로 양주삼은 엠위스청년회를 조직하고 회장을 비롯하여 전도, 인제, 학문, 교제, 통신, 회계 등 7개 국에 각각 책임자를 두었다. 청년회 활동 중에 토론회가 으뜸이었다. 기독교 신앙, 교회 개혁, 조국의 현실과 미래, 재미 한인의 사명, 민족주의, 민주주의 등의 주제로 가편과 부편 연사의 강연을 들은 후 서로 토론하는 토론회를 통해 존 웨슬리의 신앙정신과 신앙적 민족의식을 고취할 수 있었다. 1907년 그는 '국민의 자격, 근

이었는데 반해 1909년에는 노동 조건으로 인한 변동과 다른 곳에서 학교를 다니거나 귀국한 교인을 포함하여 48명에 그쳤다. 양주삼은 상황뿐만 아니라 인근에서 노동하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전도활동을 펼쳐 1907년 세크라멘토에, 1908년경에는 비실리아에 각각 교회를 세운다.

양주삼은 문서선교에도 열을 올렸다. 신앙생활에 필요한 신앙서적을 조국에서 구입하여 판매하였고, 교회에 구비하기도 하였다. 1909년 교회에 구비한 서적은 '국문신약'을 비롯하여 '신구경요지문답'에 이르기까지 21가지에 이른다. 1908년 '대도'를 창간하고 주필로 활약하면서 그는 성경해설, 교양, 미국 내 교포소식과 고국소식 등을 싣고 신앙운동을 넘어 민족 운동을 꾀했다. 매일 1,000부를 발행하여 절반은 미국 전역과 멕시코와 중국 그리고 절반은 조국에 우송한다.

양주삼은 백인과의 신앙적 교제의 장을 넓혔다. 1907년 한국으로 파송 받은 감리사 리드 목사의 아들 윌트만 리드 선교사를 초청하여 상황교회 청년회에서 설교케

2년 후에는 양주삼에게 세례를 베풀 상해 중서서원 교장인 과거 박사를 초청하였다. 그는 '청년이 마땅히 주의할 일'로 설교했는데 이때 한국 선교사로 떠나는 로버트 T. 코이트 목사 내외도 참석했다. 국내 여성교회 회장 베넷 여사와 서기 맥도날 부인, 전도부 총무 램버스 박사 등 미국 남감리교회 지도자들도 본 교회를 방문했다.

양주삼은 1909년 7월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평생의 사명으로 삼으라'는 소명을 받고 그 해 12월에 댈러빌트대학 신학과에 입학하기까지 3년간 본 교회를 섬긴 셈이다.

나라 사랑

양주삼은 선교 헌금을 통해 나라 사랑을 실천한다. 1908년에 상황교회 교인들이 25원을 모아 황해도 토산에 설립된 소학교 '한영지서원'에 보내는가 하면, 1909년에는 건축 중 장마로 무너져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경주 남문밖교회에 보조를 요청했을 때 때히 29원 25전을 헌금했다.

본 대학을 졸업하던 그 해 집사목사로 안수를 받았고, 곧바로 예일대학 신학부로 옮겨 1914년 신학부를 졸업하던 6월, 시간도 기황구출금을 기부하는 것을 보면 그의 민족사랑이 식지 않았음을 본다.

귀국

양주삼은 1915년 조국으로 귀국한다. 서울 협성신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자교교회를 섬겼고, 1916년에는 '신학세계'를 창간하였다. 2년 후 윤치호가 개교한 개성 송도고등보통학교 교감을 역임한 이듬해 그는 미국 남감리교회 선교 100년 기념사업회 총무에 선임되어 상경하였는데 총무를 사임하던 1923년에는 남감리교회의 교회수와 교인수가 배 이상으로 증가하여 그가 부흥의 불길을 이끌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양주삼은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이사, 조선남감리회 합동연구위원의 위원, 이스라엘 국제선교대회 한국대표, 미국 남감리회 조선연회 회장, 기독교조선감리회 초대 총리사, 중국 남북감리회 총회 한국대표, 해주구세요양원 이사, 조선기독교서회 이사, 배화여자고등학교 재단이사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했다.

이중에서 그는 미국 남북감리회 교가 합동할 때 감리교 일치운동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감리교회의 인원과 재산 관리, 타 교단과의 연합 사업, 교역자 은급제도 마련, 여성 목사안수 등의 한국 감리교회 초대 총리사로서의 그의 업적은 훌륭했다.

만주 시베리아 선교

일제탄압으로 만주와 시베리아로 떠나 이주한 한인들이 늘어나자 양주삼은 1920년 이곳을 선교지로 조성하고 동족 선교에 앞장선다. 2년 후 양주삼이 미국 남감리회 총회에 한국대표로 참가한 뒤 콜럼비아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미국 남감리회 만주·시베리아 선교사업 총책을 맡기도 하였다. 조선감리회 총리사를 사임한 1938년부터 만주 선교사업을 관장하기까지 그는 만주 선교를 이어갔다.

양주삼은 1945년 광복 후 일제말 친일행적의 오점을 남겼으나 거듭 회개하였다. 이듬해 6·25전쟁이 일어나 대한적십자사 총재의 결재와 활동이 절대적으로 요구된 터에 한강을 건너지 못하고 북한 공산당에 납북되었는데 그의 순교를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damien,sohn@gmail.com

36-양주삼(1879년-6.25 당시 남북)

백사당 양주삼은 고종 16년인 1879년 1월 25일에 평안남도 용강에서 가난한 선비 양정섭의 맏아들로 출생했다. 유불선에 관심을 가지던 중 중국 상하이 선교사들이 발간한 '만국공보'와 '덕해입문' 등을 읽고 평양의 윌리엄 A. 노블 선교사와 윌리엄 M. 베어드 선교사의 전도를 받아 19세에 용강읍교회를 찾으면서 기독교에 입교하였다.

20세에 상경하여 인공양잠습소에 다니던 중 상하이 중서서원의 설립자 영 J. 알렌의 저서를 접하면서 흠뻑 B. 헬버트 선교사와 찰스 T. 폴리어 선교사의 소개 편지를 들고 1901년 중서서원에 입학하여 4년 후 졸업했다. 이 기간 그는 R.A. 파커 교장에게 세례를 받아 미국 남감리교 교인이 되었다.

상향한인교회

영국을 거쳐 1906년 양주삼은 상향으로 이동하였다. 그 해 12월 양주삼은 25명의 장립회원과 함께 미국 남감리교회 태평양 지역 동양인 선교지방 감리사이자 내한선교사였던 C. F. 리드 목사의 도움으로 상향한인교회를 설립한다. 그는 이듬해 3월에 미국 남감리교회 태평양 연회의 상향지방회에서 전도사로 파송을 받았고, 미국 북감리교회 H.B. 존슨 선교사의 도움으로 전도회를 조직한 문경호 전도사에 이어 상황에 온 두 번째 전도사가 된다.

양주삼은 캘리포니아 스트리트 2350번지의 3층집을 빌려 2층은 예배당으로 사용하였으나 1층과 3층은 각각 식당과 숙소로 사용하여 숙식처로 제공했다. 이 건물에서 그는 인간의 자아각성, 민족 구원의 큰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교회와 민족의 새로운 지도자에 대하여 설교했다. 그가 시급하게 추진한 것은 야학이었다. 한인들이 영어를 배우면서 서



양주삼

1906년 상향으로 이주 한인교회 설립...세크라멘토, 비실리아에도 교회 설립
문서선교지 '대도' 발간해 미 전역, 멕시코, 중국, 한국에 발송
미국감리교 일치운동에 공헌, 한국감리교회 초대총리사 사직후 만주선교 시작



대도 제1권 제1호 표지



양주삼 전도사와 처음 교인들

로 의지하고 미국의 발전한 문명을 배우는 기회가 된다고 믿고 그는 미국인 애담 부인과 함께 일주일에 사흘 밤을 영어를 가르쳤다.

일 한국 정형'에 관하여 연설한 적이 있다. 1906년 12월 교회 설립 때는 30여명이 모였고, 1908년에는 70명

하였고, 그 해 11월 미국인이면서 한국인이라고 불린 흠뻑 B. 헬버트 선교사를 위한 환영회를 열었다.

'대도'를 창간하던 그 해 상황한인교회 설립멤버였던 장인환과 전명운이 대한제국 외교고문인 미국인 D. W. 스티븐스를 페리부두에서 저격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때 양주삼이 스티븐스가 절명하기에 앞서 장인환과의 대질신문 통역을 맡았고, 이 과정에서 장인환이 2등 살인죄로 비교적 가벼운 선고를 받게 하는가 하면, 전명운은 무죄선고를 받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스티븐스 저격사건 이후 1909년에 대한인 국민회가 창립되고 그 해 6월에 그는 김영일과 함께 국민회 상향지방회 대의원으로 선임되어 조국의 독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댈러빌트대학 재학 중이던 1910년 양주삼은 여름 방학기간 중 백인교회를 방문하고 한국의 독립을 호소했고, 그 해 11월 일본의 횡행으로 '대도' 주필 윤병구가 사임함에 '왜인의 방해가 여기까지 미치지 못했으니 더욱이 분개함을 이기지 못하겠도다'고 한탄했다. 그가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영어판, 중국어판 책도 판매합니다



강사: 라흥재 목사



하나님의 구원계획, 다니엘, 요한계시록, 성경 세미나



도서주문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성경도 신앙(41) 청교도의 가정생활



이윤석 목사
(NY 브루클린 제일교회)

(나)점진적인 기독교 신앙 교육
신앙교육은 단번에 이루어질 수 없다. 계속적인 교육을 통해 점진적으로 완성되어 간다. 피터 버클리(Peter Buckley)는 "자녀들이 어릴 때 우리의 경건교육이 시작되어야 하는데 그들은 조금씩 부어지는 것만 수용할 수 있는 좁은 병과 같아서 단번에 많은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에게 단번에 많은 것을 가르치려 하지 말고, 조금씩 꾸준히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했다.

자녀들이 말을 알아들 수 있게 되면, 성경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에 대하여, 구원에

라)신앙교육의 의무를 감당해야 할 부모에 대한 강조
청교도들은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이며, 이를 게을리 할 경우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 총회에서 활동을 하였던 아더 힐더삼(Arthur Hildersham)은 '경건한 가족'이라는 책에서 "만일 하나님께서 보살피도록 맡겨주신 자녀의 영혼이 부모의 과오로 인해 멸망하게 된다면 부모의 영혼도 죽게 될 것이다. 이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도록 소명을 받은 자가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할 때 내리시는 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함으로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하지 않은 부모

5) 청교도의 자녀 교육의 수단들
가)교리 문답서
청교도 목사들과 교사들은 교리 문답을 통해서 교인의 신앙을 양육하였다.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참석하였던 목사들 가운데 10여명은 스스로 교리 문답서를 작성하여 교회에서 가르쳤고 1660년 매사추세츠의 청교도들도 인쇄된 14개의 교리 문답서를 사용하여 신앙교육을 시켰다.
교리 문답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한 뉴잉글랜드 청교도들은 교리문답을 가정에서 교육할 것을 법적으로 규정하기를, 모든 가정은 일주일에 한번 이상 가족들에게 교리 문답을 가르쳐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징계야말로 여호와와의 관계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말하면서 매의 활용을 주장하였고, 코튼 매더(Cotton Mather)는 성도들에게 "아이들을 저주 아래 있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매를 대라"고 가르쳤다.
나다니엘 굿킨(Nathaniel Goodkin)은 "자녀들이 잘못될 때 훈계하고 책망하며 감정적으로 잘못된 길로 들어설 때 징벌하라. 지나치게 정욕에 빠져 있을 때에 책망하고 훈계하되 노한 감정으로는 매질하지 말라"고 설교하였다.
"인디안의 사도"라 불리는 존 엘리엇(John Eliot)도 "어머니의 부드러운 매는 뼈나 살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모·칼·럼

장사라 사모
(텍사스 빛과소금의교회)

예수님만 죽고...

브라질에 와서 잠깐의 삶을 살아본다. 비행기를 타고 오며 내내 생각했다. 이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96세의 김형석 교수는 65세부터가 인생의 황금기라고 말씀하는데 나도 정말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고생하는 것. 그래서 사랑이 있는 고생을 하고 사는 인생이 값진 인생이라고 96세를 사신 그분은 말씀하신다.

여태껏도 그래왔듯이 그리웠던 한분 한분을 만나니 마음을 다해 섬겨 주시는 모습들에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소란한 바깥 공기에도 이렇게 따뜻하고 훈훈한 사람들이 처음 살듯이 두 번 다시 못 살듯이 삶을 반듯하고 정성스레 사는 분들의 삶을 만나 본다.

그렇다.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고전2:9)는 말씀을 삶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얼마나 신명나는 인생을 살까?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고 계셔도 사람이 그것을 가져오는 방법을 모르면 그런 삶은 찾아오지 않는 것을... 아무도 다가오는 미래의 길을 가본 사람이 없어 알지 못해도 그 길을 이미 가서 알고 계시는 주님을 잘 따라가기만 하면 우린 그야말로 수지맞는 인생을 살 수 있을 텐데 말이다.

사람들은 많은 성경지식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들이 믿는 이 복음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삶 속에서 부딪쳐 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놀라운 삶을 누리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 만일 180마일로 달려오던 트럭과 내가 팽 부딪쳤다면 나는 아마 박살이 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트럭과는 비길 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팽 부딪치고서도 우린 멀쩡하게 다 살아있을까. 정말 나를 살리기 위해 주님이 자기 생명과 맞바꾼 십자가가 인생에 팽 부딪친 사람은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일로 덮고 살순 없지 않을까. 오늘도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죽고 나는 썩어빠져 살아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이 나오는 상관없는 일로 남아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안에서 잘 죽는 엄청난 일이 삶들마다 일어나면 좋겠다.

그렇다.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매일 물을 만나고 햇빛을 만나고 돌봐줄 사람을 만나야 하듯이 우리의 삶이 의미 있고 풍요로운 삶이 되기 위해서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이 되듯, 예수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나도 십자가와 연결되어지는 고리가 있어야 하리라.

세상일은 다 사람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데, 세상은 사람의 힘이 아니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지는 않겠다. 그래서 어찌지 우리 주위에 점점 이음이 사라지고 있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만남을 거의 포기한 채, 저마다 자기 일에 노예가 되어 조여 오는 생활가운데 모두가 숨 가빠하며 사는 것 같다. 어쩌면 상처 받아 텅 비어버린 마음인데도, 서로 건넌갈 수 있는 다리 대신, 벽을 높이 쌓아 자기만의 울타리를 만들며, 점점 더 잦아드는 삶의 굴레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삶을 영위하며 산다. 그래서 가장 가까워야 하고 행복해야 할 부부 사이부터 조금만 단 거리를 좁혀 주님의 십자가와 연결하고 그 고리의 부를 조금씩 넓혀가서, 사랑으로 고생하고 싶은 사람들을 더 많이 만들며 그들 때문에 정말 살맛나는 그런 나의 남은 인생이 되길 간절히 바램 해본다.

그렇다. 언젠가 프린트를 하려다가 잉크가 다 떨어진 것을 발견하고 그제 서야 깨달아지는 게 있었다. 내 마음의 잉크도 다 떨어져 있다는 거... 그렇게 사는 게 힘이 더 때면, 뉴스에 나오는 일가죽 교통사고를 생각하고, 또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는 사람들을 훑쳐보면서 오늘의 일상이 얼마나 큰 기적적인 깨달아지던 어느덧 잃었던 감사를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세상일들과 염려로 짝 차서 바람 빠진 영적기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에 새기고 또 새겨서 죽어도 감사만 하는 우리 삶이 되면 좋겠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행복해야 하니...

changsamo1020@gmail.com

자녀 신앙교육은 부모 의무...하나님말씀에 기초한 생활 강조 징계(매)의 사용 목적은 자녀의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

대하여 차근차근 가르침으로 자녀들이 기독교적 신앙을 갖게 하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 거듭난 신자로 성장하는 교육

청교도들은 자녀에게 글을 가르치면서부터 단순히 문자를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성경을 읽고 구원에 대한 교리를 깨닫게 함으로 거듭나게 하려고 하였다. 이런 배경에서 청교도 지도자 존 코튼(John Cotton)은 "맹목적으로 자녀들에게 글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글을 가르치라"고 하였고, 벤자민 워드워스(Benjamin Wadsworth)도 젊은이들에게 "만일 글을 읽을 수 없다면 배움을 위해 모든 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하며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읽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한 부분을 읽지 않고는 하루를 보내지 않게 하라"고 훈계하였다.

청교도들은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을 자녀들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 거듭나게 하고 거듭난 신자로 자라도록 하는데 두었다.

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주장 했다.

리처드 매더(Richard Mather)는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게을리 할 때, 그들이 지옥의 고통 가운데서 다음과 같이 부르짖을 것이라고 설교하였다:

"내가 여기서 받는 이 모든 고통은 당신들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내게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려주어야 했지만 알려주지 않았 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죄로부터 멀리하게 하고 바로 잡아야 할 책임이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 습니다. 나의 부패와 죄에 대한 책임이 당신들로부터 전가되어 왔지만, 당신들은 내가 그것 들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어떤 경고도 하지 않았 습니다. 지금 나는 그 죄 때문에 저주 아래 있습니다. 화로다 나의! 육신적이 고 생각이 모자란 부모를 두었었 구나! 자신의 영원한 비참함을 막기 위해서 자녀에게 연민과 동정 을 보이지 않는 이들에게 화가 있으리이다!"

청교도들의 부모에 대한 강력한 신앙교육의 의무는 현대교회의 우리에게 더욱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하라고 하였다.

매사추세츠에서 사용되던 14개의 교리문답서 가운데 가장 널리 사용된 것이 바로 보스턴 교회의 목사였던 존 코튼이 작성한 '어린이를 위한 신령한 우유'였는데, 거기에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내포하고 있다.

하나님에 대한 설명과 인간의 타락에 대한 지적, 심계명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사랑의 방법이 나타나 있다. 또 인간의 무능력과 부패의 문제를 다루었으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적용, 믿음, 기도, 중생, 성도의 교제, 교회, 은혜언약, 세례와 성찬 등을 칼빈주의 신학에 기초하여 설명함으로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교육할 수 있게 하였다.

뉴잉글랜드 청교도들은 이런 교리 문답을 통해 어린 자녀들을 신앙으로 지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생활함으로 가정의 경건을 이루고자 하였다.

나)징계의 매
청교도들은 신앙 양육의 수단으로 주저하지 않고 매를 사용하였다. 존 토턴(John Norton)은 "교리와 모범만으로는 부족하다.

매질을 축복하시고 지혜를 더해 주셔서 심령의 부패를 초래하는 굳은 용이를 부수어버린다"고 징계를 통한 신앙교육을 주장하였다.

청교도들이 사용한 매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인격적인 설득과 사랑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코튼 매더는 "자녀들을 미친 듯이 책망하지 마시오. 감정적으로 하면 아무 것도 되는 것이 없지만, 감정으로 때릴 때 더 나은 결과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옥 불에서 나오는 것처럼 격분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책망하고 그 이유를 밝히시오. 성경에 기초하여 꾸중하십시오. 성경에 기초한 책망은 일상적인 위엄이나 권위보다 더 큰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청교도들은 사람에서 우리나라는 징계가 아닌 과격한 처벌을 폭력으로 간주하였고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자에게는 엄히 벌하였다. 매를 사용하는 목적은 아이의 감정이나 육체를 상하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이다.

younsklee@hot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뉴욕브루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45 금요일예배: 오전 9:30 성경공부: 오전 10:00 화,토 Tel: (516)265-2584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http://www.kccb.org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양)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West Washington, NY 11050	뉴욕새벽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1:30 주일성경공부: 오후 1:1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화-토) Tel: (917)733-7387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chungkita@yahoo.com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준준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찬양예배: 오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Tel: (718)637-1470 45-50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예배: 오전 10:30 영양예배: 오전 10:4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461-2810(Fax 겸용), (917)373-3411 46-04 162 St., East Meadow, NY 11558 www.kapcc.org	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영양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5:45(월-토) http://www.cpcpcny.org Tel: (718)279-2757, 2758, Fax: (718)279-1823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8:30 금요일(선배)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718)461-7835, Fax: (718)938-1777 45-65 162 St., Flushing, NY 11358 www.nyaninchon.com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금) 금요일기도회: 오후 8:30 (매주1주,3주) Tel: (201)342-9194, Fax: (201)9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http://www.sungdochurch.org/	리빙스턴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찬양예배: 오전 10:50 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30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37-57 104 St., Flushing, NY 11368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1부 오전 7:30분 주일2부 오후 1:50분 찬양예배 오후 3:20분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 토요일 오후 8시 Tel: (347)513-1351, cheong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	주미전교회 담임목사: 이규본 주일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월-토): 오전 6:00 금요초빙기도: 오후 5:00 평일예배: 오후 1:00 Tel: (718)787-8999, bonrhee@hotmail.com 70 Plandora Rd, Manhasset, NY 11030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수요일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Tel: (718)886-4040, Fax: (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apcc.org	퀸즈한인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찬양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NCF영어: 오후 1:30 Tel: (718)672-1150 Fax: (718)672-1151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kccny.org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입니다...
브라질 새소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주일6부예배: 오후 7:00 Tel: (5511)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15-PARI-SAO PAULO-SP-BRASIL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언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일기도회: 저녁 9:00 주일학교: 아침 7:40 목, 토,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 (562)556-78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김성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양)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416)490-9060 http://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선교사: 임한곤 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6:00 (1, 2, 3, 부 스페인어 설교) Tel: (595)21-574-985 E-mail: hanikr@hotmail.net Cervantes NC, 1001, Asuncion-PARAGUAY	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후 11:15 주일3부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양)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Tel: (808)947-5252, Fax: (808)947-5151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폭풍우 가운데 들려오는 소리” 주제 웨체스터교회연합 부흥회, 강사 김성국 목사

웨체스터한인교회협의회(회장 이종삼 목사)가 주최한 웨체스터교회연합 부흥회가 지난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한인동산장로교회에서 개최됐다.

김성국 목사(윈즈장로교회 담임)를 강사로 “폭풍우 가운데 들려오는 소리”라는 주제로 열린 부흥회는 금, 토, 저녁 8시, 주일은 오후 5시에 각각 열렸다.

김성국牧사는 첫날 “폭풍우 가운데 들려오는 소리”(욥38:1-11)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최근 태풍이 많이 와서 피해가 컸는데, 인생에도 수많은 폭풍이 있다.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한다. 평화를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폭풍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당황할 때가 많다”며 그러나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 폭풍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그 음성은 첫째, 누구나? 폭풍우 속에 하나님의 뜻(섭리)이 있다. 즉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예배 안에 모든 것이 있다. 포기하지 말라. 둘째, 무요! 폭풍은 끝이 아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예배를 드렸다면 당당하게 맞서라. 안전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라. 복음을 선포하라. 셋째, 그러라! 폭풍에는 한계가 있다. 그치게 하신다, 피할 길이 있다.



웨체스터교회연합 부흥회에서 헤리티지 콰이어가 찬양하고 있다.

꽃대가 있다. 교회는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김성국 목사는 둘째 날 “미래로 가는 길”(렘29:4-14), 셋째 날 “우리가 외쳐야 할 것”(롬8:30-39)라는 제목으로 각각 말씀을 전했다.

또 윈즈장로교회 헤리티지 콰이어와 블레싱 콰이어가 첫날과 둘째 날 찬양했으며 마지막 날은 한인동산장로교회 찬양대가 맡았다. 사흘간 찬양인도는 답스페리안 안교회, 웨체스터장로교회, 한인동산교회 찬양팀이 각각 인도했으며, 최기성 목사, 임일송 목사, 안성국 목사가 각각 기도했다.

마지막 날 헌금기도는 이민영 목사가, 축도는 김성국 목사, 김지

섭 목사, 박효성 목사가 각각 맡았다.

웨체스터교협에는 다음의 14개 교회가 소속돼 있다.

뉴욕백민교회(임일송 목사), 뉴욕세광교회(이민영 목사), 뉴욕한인제일교회(박효성 목사), 웨체스터반석교회(김지섭 목사), 새은혜교회(김홍선 목사), 웨체스터한빛교회(김종권 목사), 웨체스터제일교회(김 영 목사), 웨체스터중앙교회(김철성 목사), 웨스트체스터연합교회, 답스페리안교회(최기성 목사), 한인동산교회(이종삼 목사), 뉴욕능력교회(안성국 목사), 뉴욕웨체스터선교교회(허경원 목사)

(유원정 기자)



미주예성 미국서남지방회 지방회장 취임예배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미주예성 미국서남지방회 지방회장 취임예배 오병익 목사...2016년 서부지역 1개 지방회 신설

예수교미주성결교회(이하 미주예성) 미국서남지방회는 지난 9월 24일 오후 5시 30분 남가주벨엘교회에서 미국서남지방회 지방회장 취임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행사는 총 3부로 1부는 예배, 2부는 취임식, 3부는 만찬과 친

교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예배는 강양규 목사(남가주세안약교회)의 사회로 양홍규 목사의 기도, 김규진 장로의 성경봉독, 남가주벨엘교회의 성가대 찬양, 그리고 박용덕 목사(남가주 빛나리교회)의 설교가 있었다.



캘리포니아 선교대학 개교감사예배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새로운 미래적 선교시스템으로 운영” 캘리포니아선교대학 개교 감사예배

캘리포니아선교대학(CAL-UM 총장 이성희 박사) 개교감사예배가 9월 30일 오후 5시 미주장신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 강당에서 열렸다.

이성희 총장은 인사말에서 “CAL-UM은 세계 유일한 선교를 위한 전문대학”이라 소개하며 “선교의 이론과 실재를 가르치는 학

교, 선교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각 선교지 상황에 따른 전략연구, 그 모델들을 실제로 실천하고 관리하고 후원하는 선교기관, 이 세 가지 형태의 기능이 유기적으로 한 곳에서 운영이 되는 새로운 미래적 선교시스템으로 운영이 될 것”이라 말했다.

그는 “은 세상이 우리의 캠퍼스

2부 취임식은 취임자를 위한 기도 순서에 신임 지방회장을 위해 지방회 모든 임원들과 목회자들이 함께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가진 업무에 목사의 취임자 소개와 오병익 목사의 취임선서, 취임패 증정, 취임사가 진행됐다.

김제임스 목사(올리브라이프교회)의 축사와 김현지 집사(소프라노)의 축가 그리고 박용덕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한편 미국서남지방회는 지난 2016년 10월 25일 제 14차 예수교미주성결교회 총회의 승인을 받아 전략적으로 미국 서부지역에 또 한 개의 지방회를 신설하기로 한 결의에 따라 이뤄졌다.

미국서남지방회에는 총 10개의 교회와 1000여명의 성도, 그리고 40여명의 교직자들이 소속돼 있다. (기사제공: 미주예성 미국서남지방회)

“부르심에 부끄럼 없는 삶 살아가” KAPC 펜실베이니아노회 제36회 정기노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펜실베이니아노회(노회장 문성록 목사) 제 36회 정기노회가 지난 9월 12일 오전 11시 포코노한인장로교회(담임 문성록 목사)에서 열렸다.

예배는 노회장 문성록 목사 인도로 부노회장 장부안 목사의 기도, 윤정관 목사의 성경봉독, 문성록 목사의 설교, 김상하 목사의 축도로 진행됐다.

문성록 목사는 “우리는”(사 43:1-7)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성하신 분이시다.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신분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책임 있게 그 본분을 감당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셨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져야 할 몸가짐이나 행동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

는 책임 있게 처신해야 한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명해 부르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부르심에 실제로 행동하는 삶 곧 성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하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2부 회무처리에서는 강장범 목사를 서기로 보선하고, 노회규칙 제3장 11조의 개정과 총회 전국노회장 연석회의 참석 등을 다뤘다. (기사제공: KAPC 펜실베이니아노회)



그레이스미션대학교 박사원이 주최하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특별세미나에 대한 기자회견을 마치고 학교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새롭게 변화하는 현대선교 이슈들’ 그레이스미션대 종교개혁500주년 특별세미나 11월 13일부터

그레이스미션대학교(총장 최규남 박사) 박사원(원장 이병구 박사)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특별세미나를 개최한다.

‘새롭게 변화하는 현대선교 이슈들’이란 주제로 열리는 세미나는 본교 선교학박사(D.Miss) 과정 수업의 일환으로 열리지만 선교에 관심이 있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오픈강의로 진행된다. 세미나는 오는 11월 13일(월)부

터 12월 11일(월)까지 매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마지막 날인 12월 11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갖는다. 강사와 강의 제목은 ‘교회갱신과 선교적 교회(이상훈 교수), ‘한국선교운동과제(박기호 교수), ‘선교적 리더십 개발(이광길 교수), ‘선교사 멤버케어(조나단강 박사), ‘종교개혁이 미친 선교역사(최규남 교수)’ 등이다. (박준호 기자)

최규남 총장은 “미주한인교회가 건강안교회가 되려면 실질적인 선교적 교회로 전환하거나 다문화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며 “이러한 선교적 교회에 대하여 선교학적으로 접근의 필요성이 요구가 되었기에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고 세미나 개최 이유를 밝혔다.

이병구 박사원장은 “새롭게 변화하는 현대 선교 이슈들을 이해함으로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세계선교 동력이 다시 일어나기를 바란다”며 “한인 이민목회는 다문화 사역으로 전환하고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야 한다. 따라서 목회현장에 계신 목사, 선교사, 신학생을 비롯한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종교개혁 500주년 특별세미나는 본교캘리포니아(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에서 갖게 되며 세미나 등록비는 50달러(점심, 교재 제공)다.

참석인원은 선착순 50명이며 등록은 10월30일까지.

자세한 문의는 (714)525-0088로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세계복음선교회가 주최한 에제르 사모 힐링 아카데미에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모는 목회자 남편 돕는 응원군” 세계복음선교회, 에제르 사모힐링 아카데미

에제르 사모 힐링 아카데미가 10월 2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JJ그랜드호텔에서 열렸다. 세계복음선교회(총회장 남중성 목사) 주최로 열린 강의는 이희숙

목사가 강사로 나서 열린 강의의 열었다.

이희숙 목사는 “사모가 살아야 목사가 살고 목사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며 “사모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한 인간이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보배롭고 존귀한 사랑받는 하나님의 딸”이라 설명했다.

이 목사는 “사모는 한 남편의 아내이자 어머니이고 목회자 남편의 돕는 배필 ‘에제르’(응원군)이다. 그것을 알면 고난의 길이 허락되더라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 에제르는 히브리어로 돕는 배필을 의미한다. 사모는 목회자 남편들에게 돕는 자요 응원군이다. 따라서 좋은 에제르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좋은 영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워주어야 한다. 지혜로운 조언자가 되어야 한다. 사모로 자기위위와 본분을 지켜야 한다. 사모는 섬김의 중심축이 남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올바른 교회관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하며 이 자리에 모인 사모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준호 기자)



제2회 OCKMC정기연주회가 감사한인교회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Harmony of Love in Christ’ 제 2회 OCKMC 정기연주회 성황

오렌지카운티 코리아인 매스터코랄(OCKMC 단장 장경빈, 지휘 이미영) 제 2회 정기연주회가 감사한

인교회(담임 김영길 목사)에서 10월 1일 오후 7시 성황리에 열렸다. 장경빈 단장은 “이번 연주회는

‘Harmony of Love in Christ’ 주제로 갖게 됐다”며 “제2회 정기공연을 통해 사랑과 하모니와 감동과 감사와 평안이 회복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구봉주 목사(감사한인교회) 개회기도로 시작된 연주회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 누가 문을 두드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승전가’ 등을 불렀다.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 선교무지컬팀 Seeds Of Worship과 가야금 연주자 이정화, 베누트리오가 찬조 출연해 이날 공연을 빛내주었다.

한편 이날 공연은 감사한인교회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일부 단원들이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일이 발생해 공연순서가 조정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이 해프닝으로 공연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냈다. (박준호 기자)



나성제일교회에서 열린 사진으로 보는 나성제일교회 50년사 출판감사예배를 마친후 관계자들이 테이프커팅을 하고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50년 역사... ‘사진으로 보는 나성제일교회 50년사’ 출판감사예배

나성제일교회(담임 김문수 목사)는 ‘사진으로 보는 나성제일교회 50년사’ 출판감사예배를 10월 1일 오후 4시에 가졌다.

김문수 목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50년 역사의 교회의 담임목사직이란

바톤을 이어받았다”며 “50주년 기념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을 돌아볼 때 감격스럽다는 마음을 갖게 된다. 목사로서 하나님나라에 쓰임 받는 것만으로도 감격스럽다. 이 자리에 있기가까지 함께해주시고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했다. 김문수 담임목사 사회로 열린 출판감사예배는 성재성 장로가 기도했으며 할렐루야합창중창단이 특송했다.

이어서 김철원 목사(전 나성제일교회 담임)가 ‘격려의 사람’(행4:36-37)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이대근 장로(50주년 편집위원장)가 50주년 화보소개를 했다.

이연주 목사가 김재연 목사가 본교회 50주년을 위해 만든 시 ‘일어나라 제일의 용사여’를 낭독했으며 조희서 목사(서울씨티교회 담임)가 축사했다.

이어서 이재연 안수집사(50주년 준비위원 총무)가 담임목사에게 50년 화보를 헌정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본 교회 유철목 집사와 김혜원 자매가 축가를 불렀다.

이날 예배는 정윤두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결실의 계절...하나님께서 흠향하는 찬양제로”

제 36회 남가주 찬양합창제 성료

제36회 남가주 찬양합창제가 10월 1일 오후 6시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열렸다.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회장 김원재) 주최로 열린 합창제는 베데스다대학교(지휘 랜디김 교수), 남가주사랑의교회(지휘 조성환 목사), 해브리 미션 코랄(지휘 김원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지휘

전현미), 아리랑 합창단(지휘 줄리김), 캘리포니아 칠드런스 코랄(지휘 김원재), 남가주장로중창단(지휘 조성환 목사), 선한목자교회(지휘 김원재), 은혜한인교회(지휘 윤대중) 등이 참가해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양을 선사했다. 김원재 회장은 “제36회 남가주찬양합창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

양과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운을 뗀 뒤 “풍성한 결실을 맺는 계절에 감사와 감격의 극진한 찬양의 제사

(박준호 기자)



한미메디칼그룹이 굿사마리탄 병원 LA 올림픽 라이언스 클럽 LA 시 노인국과 함께 주최한 제21회 한인 무료건강박람회

제 21회 한인무료 건강박람회 성황 한미메디컬그룹과 굿사마리탄 병원 공동주최로

한미메디칼그룹이 굿사마리탄 병원, LA 올림픽 라이언스 클럽, LA 시 노인국과 함께 주최한 ‘제21회 한인 무료건강박람회’가 9월 30일 굿사마리탄 병원 컨퍼런스 센터에서 300여명의 한인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각종 건강 관련 이슈를 다루는 세미나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각종 암 검사를 비롯해 혈액 검사와 안과 및 치과 점검, 독감 예방 주사 등 각종 건강 검사와 각과별 전문 의들과의 일대일 상담이 무료로 진행됐다.

조셉김 전문의는 “당뇨 진단은 혈당 수치가 공복 시 126mg/dl 이상, 식후에는 200mg/dl 이상이며 참고로 하는 당화혈색소(HbA1c) 수치는 6.5% 이상인 경우”라며 “한국인 전체 인구의 8-9%가 당뇨병이고, 중당뇨가 25%를 차지할 정도로 타인종에 비해 발병이 많기 때문에 관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초기 증상으로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량이 증가하며, 체중은 감소하고, 시력이 저하되는 현상을 꼽았다. 예방법은 식이요법과 운동.

(박준호 기자)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가 주최한 제36회 남가주 찬양합창제에서 출연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ABC통합교육국 교육위원 유수연 후보 재선 킥오프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교육위원 유수연 후보 재선 킥오프행사 ABC통합교육국 제 2지구 단독후보로 등록

ABC통합교육국 교육위원 유수연 후보 재선을 위한 킥오프행사가 9월 30일 오후 4시 세리토스파크 이스트 강당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유 후보는 지난 8월 11일 마감된 이 교육국 교육위원 제 2지구 선거에 단독후보로 등록돼 오는 11월 7일에 치러질 선거에 실질적으로 재선이 확정됐다.

“ABC통합교육국 내의 터주대감들로부터 나온 이야기로는 지난 4년간 열심히 일했고 저에 대한 불만 사항이 없었다고 한다. 저에 대해 주민들의 신뢰와 지지가 높은 상황에서 경쟁후보가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되지 않은 것이라 평가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역사로 생각 한다”며 “저희 교육국은 경쟁이 치열한 지역이었다. 하지만 선거를 치루지 않고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 대해 교육위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도록 사명감을 주신 것이라 생각한다. 저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목회자 아내이기도 한 유수연 교육위원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역사로 생각 한다”며 “저희 교육국은 경쟁이 치열한 지역이었다. 하지만 선거를 치루지 않고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 대해 교육위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도록 사명감을 주신 것이라 생각한다. 저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유수연 위원은 “처음 교육위원이 됐을 때와 달리 이제는 사명감을 가지고 소신껏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교육위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며 “특별히 다른 교육위원과 유대관계가 돈독해졌기에 교육위원으로서 일을 함에 있어서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유수연 ABC교육위원은 유성권 목사(갯스페리교회 EM)의 부인이다. 유위원의 두 번째 임기는 오는 12월 첫째 주에 시작된다. (박준호 기자)

한미메디칼그룹이 굿사마리탄 병원, LA 올림픽 라이언스 클럽, LA 시 노인국과 함께 주최한 ‘제21회 한인 무료건강박람회’가 9월 30일 굿사마리탄 병원 컨퍼런스 센터에서 300여명의 한인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각종 건강 관련 이슈를 다루는 세미나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각종 암 검사를 비롯해 혈액 검사와 안과 및 치과 점검, 독감 예방 주사 등 각종 건강 검사와 각과별 전문 의들과의 일대일 상담이 무료로 진행됐다.

조셉김 전문의는 “당뇨 진단은 혈당 수치가 공복 시 126mg/dl 이상, 식후에는 200mg/dl 이상이며 참고로 하는 당화혈색소(HbA1c) 수치는 6.5% 이상인 경우”라며 “한국인 전체 인구의 8-9%가 당뇨병이고, 중당뇨가 25%를 차지할 정도로 타인종에 비해 발병이 많기 때문에 관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초기 증상으로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량이 증가하며, 체중은 감소하고, 시력이 저하되는 현상을 꼽았다. 예방법은 식이요법과 운동.

USNDC 8사단 의무여단 창설기념식

박미란 소령 등 33명에게 회원증서 수여

USNDC 8사단(사단장 임기수 중장) 의무여단(여단장 하워드리 중령) 창설기념식이 9월 29일 오후 4시 JJ그랜드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창설기념식은 최화량 사단 군중참모 대령이 개회기도 했으며 임기수 사단장이 인사말씀을, 민재훈 LA영사가 격려사를 맡았다. 이어 운용부사단장 박상원 대령이 사단을 소개했으며 사령부 군중참모 정시우 대령, 제8독수리 제1여단장 하워드리 중령, 최남수 대

령, 한의사 협회장 양학봉 대위가 축사했다. 이어 미국국가 방위군 회원증서가 수여돼 박미란 소령 등 33명이 회원 증서를 받았다. USNDC 8사단은 1983년 레이건 대통령의 훈령에 의해 설립된 항토 방위군으로 국가 비상사태나 재난 시 커뮤니티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국가재난청과 함께 설립됐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HYM청년연합회
HYM(대표 더글러스김 선교사)가 주최하는 제 37회 HYM청년연합회회가 '나의 택한 그릇'(행 9:15-20)이라는 주제로 7일(토)과 8일(주) 양일간 세리토스산교회(담임 방상용 목사)에서 열린다. 강사는 임재용 목사(선한목자교회)이며 시간은 오후 7시. ▲문의: (714)393-5135

사역자 청빙
사랑한인교회(담임 하재식 목사)에서 풀타임 부목사와 파트타임 찬양리더와 파트타임 Youth Group(중고등부) 전도사를 청빙한다. △부목사 자격은 정규 신학대학원 이상 졸업자로서 목사 안수 받은 40세 미만의 기혼자, 한국어와 영어소통이 원활한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며 △Youth Group(중고등부) 전도사는 정규 신학대학원 졸업자나 대학 중인 영어설교 가능한 체류 신분이 합법적인 자이며, △찬양리더는 찬양에 탁월한 재능이 있는 자로 기타나 키보드도 찬양 리더가 가능한 자. 제출서류는 이력서(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본인 및 가족사진)와 자기 소개서(신앙 간증 및 목회 소망)이며 11월 20일까지 보내면 된다. ▲문의: (213)700-2790윤치현 장로

제 5회 홀리 리바이벌 성회
미주성결교회 남서부지부(회장 안중기 목사)가 주최한 제 5회 2017 홀리 리바이벌 성회가 '주님의 제자 되고, 제자 심으라'(마28:19)라는 주제로 6일(금)부터 8일(주)까지 개최된다. 강사는 심원용 목사(삼광교회) 담임, 삼광복지재단 이사장, 사단법인 다니엘선교회 이사장이며 일정은 6일(금) 오후 8시 유니온교회(담임 김신일 목사), 7일(토) 오후 7시 산샘교회(담임 윤석형 목사), 8일(주) 오후 6시 오렌지중앙교회(담임 이경원 목사) ▲문의: 유니온교회(626)858-8300, 산샘교회(310)328-2200, 오렌지중앙교회(714)891-2370

파사데나장로교회 위임예배
파사데나장로교회 이동우 담임목사 위임예배 및 설립 16주년 기념예배가 열린다. 위임예배는 8일(주) 오후 3시30분, 설립기념예배는 15일(주) 오후 12시이다. ▲문의: (626)793-2191

This Ability Orchestra Foundation 하우스콘서트
This Ability Orchestra Foundation 주최로 열리는 하우스콘서트가 9일(월) 오후 7시30분 626 S Windsor Blvd, LA에서 열린다. 이번 콘서트는 최경은(첼리스트, TAO 음악디렉터), 조가현(바이올리니스트), 재갈소망(피아니스트), 그리고 TAO 앙상블이 찬조 출연한다. 이번 콘서트 수익금은 2018년 여름 한국 평창에서 열리는 스포셜 뮤직&아트 페스티벌에 참가하도록 쓰여지게 된다. 참석 후원자들에게는 시인 김성순 권사의 'Have a nice day' 한영시집을 저자의 사인과 함께 선물로 증정한다. ▲문의: (323)594-2060박현주 전도사

사랑나눔 찬양콘서트
뉴홀한인교회(담임 송인철 목사)는 소리엘 장혁재 목사와 함께하는 사랑나눔 찬양콘서트를 7일(토) 오후 7시30분에 갖는다. ▲문의: (661)219-5758



USNDC 8사단 의무여단 창설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p>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영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양아카데미: 오후 7:30 세례기도: 오전 9:30(월-토) 영양아카데미: 오후 7:30(월-토)</p> <p>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991, Fax: (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2620</p>	<p>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양) 주일영양아카데미: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p> <p>lafgusa@yahoo.com / www.lafgc.com Tel: (323)913-4499,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p>나성영락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주일 6부예배: 오후 2:30(청년)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시(토)</p> <p>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p>	<p>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김문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아카데미: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시(토)</p> <p>Tel: (213)388-710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p>	<p>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아카데미: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30 EM: 대학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30</p> <p>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an.org</p>		
<p>남가주든든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 오전 11:00 주 일 할 곳: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40(월-토)</p> <p>Tel: (949)854-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facebook.com/srscsa</p>	<p>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영양아카데미: 오후 7:30 세례기도: 오전 9:20 2부: 오전 11:20</p> <p>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www.bkc.org</p>	<p>대동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아카데미: 오전 11:30 세례기도: 오전 9:30(월-토) 금요일예배: 오후 7:30</p> <p>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N.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dkpc.org</p>	<p>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의 복음화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진교회” 목요일: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p> <p>Tel: (213)559-7228 (전통 텍스 공중), Tel: (213)210-6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p>	<p>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아카데미: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p> <p>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p>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영양아카데미: 오전 9:45 EM: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화-토): 오전 6:00</p> <p>www.mpcja.org Tel: (213)381-2202, Fax: (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p>	<p>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전통)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전통) 새벽기도: 오전 5:45(월-토) 주 일 할 곳: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후 7:00(다문화인)</p> <p>Tel: (310)749-4756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p>
<p>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주일영양아카데미: 오후 2:00 영양아카데미: 오전 9:15, 11:30 영양아카데미: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p> <p>Tel: (949)857-4010 / E-mail: bedelbhc@bkc.org 16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p>	<p>LA 복음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이영성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아동부/중고등부: 오전 11:00 주일영양아카데미: 오후 2:00 영양아카데미: 오후 7:00 성경공부(목요일) 오전 10:00 새벽기도: 오전 6:00</p> <p>Tel: (323)641-0691 / ys2104@hotmail.com / www.lagumc.org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p>	<p>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아카데미: 오전 11:3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p> <p>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p>	<p>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아카데미: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목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p> <p>Tel: (213)745-9191(CH), 사택(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p>요셉선교회 담임목사: 정상호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금요일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 새벽 7:30</p> <p>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1400 Alvarado Terrace, L.A. CA 90006</p>	<p>엘버인침례교회 담임목사: 박경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영양아카데미: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p> <p>www.ircchurch.com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St., Irvine, CA 92604</p>	<p>월셔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전통)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전통) 새벽기도: 오전 5:40(월-토) 주 일 할 곳: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후 7:00(다문화인)</p> <p>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p>
<p>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영양아카데미: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00(토) 영양아카데미: 365일 24시간</p> <p>www.gracemc.com Tel: (714)446-626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Ct., Fullerton, CA 92833</p>	<p>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영양아카데미: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50(월-토) 성경대회: 오후 7:20(금)</p> <p>Tel: (310)325-4020, Fax: (310)325-4025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www.junimchurch.com</p>	<p>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 주일영양아카데미: 오후 7:30 목요일예배: 오전 6:00(월-금)</p> <p>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pc.org</p>	<p>중은마을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영양아카데미: 오후 7:30 목요일예배: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수요일예배: 오전 6:00(토)</p> <p>www.socalsamsungchurch.org Tel: (714)646-9259 Fax: (714)646-9264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p>	<p>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p> <p>www.cornestone.org / e-mail: pastor@icornerstone.com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2</p>	<p>토렌스, Irvine, 은교회 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양, 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영양아카데미: 오후 2:00(전통) 주일 4부예배: 오후 3:00(청년) 주일영양아카데미: 오전 10:00 토요일예배: 오후 8:00</p> <p>www.torrancegc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키워드로 보는 2017 교단총회 결산

동성에 활동에 철폐... 강력한 반대 결의 잇달아

(1) 동성에 대응

올해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의 정기총회는 사실상 동성에 반대 결의의 장(場)을 방불케 했다.

동성애자나 동성애를 지지·옹호하는 이들에 대한 신학교 입학학을 불허하는가 하면 이들이 요청하는 예배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동성에 활동에 대한 철폐가 내려진 셈이다.

이 같은 교단 총회의 결정은 현재 법외계 차원에서 펼치고 있는 '동성애·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동반연) 활동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교계 일각에서는 크리스천 동성애자나 동성애 지지자들에게 대한 돌봄과 동성애자들에 대한 회심 등의 대책 마련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동성에 관련 대책에 있어서는 국내 양대 장로 교단이 헌법 개정 등을 통해 강경책을 앞장서서 내놨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총회장 전계현 목사)는 헌법 제4장 제3조 '목사의 직무'항에 '동성애자와 본 교단의 교리에 위배되는 이단에 속한 자가 요청하는 집례를 거부하고 교회에서 추방할 수 있다'고 삽입했다. 또한 동성애자와 동성애 동조·옹호자들은 교단 산하 신학교 입학이 전면 금지된다. 동성에 신학을 지지하거나 가르치는 교직원의 임용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동성애자가 교단 산하 7개 신학교에 입학하거나 동성애 신학 지지자가 임용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학교 상벌위원회와 총회에서 징계토록 했다.

예장통합 총회(총회장 최기학 목사)도 동성애자와 동성애 옹호·지지자가 교단 산하 신학교나 교회 내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통합 총회는 헌법 개정을 통해 동성애자는 교회의 향촌직(

장로·권사·집사)과 임시직, 유급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했다. 통합 총회는 향후 100만인 서명운동 등을 전개하며 반동성애 운동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예장합신 총회(총회장 박삼열 목사)는 교단 산하 목사와 장로가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옹호할 경우 면직, 출교하도록 했다. 동성애 지지·옹호의 세부 사례로는 '동성애자에게 회개 없는 세례를 집례하는 경우' '동성결혼 주례를 집례하는 경우' '동성애 행위를 하는 경우' '동성애 옹호 발언이나 설교 강연 등을 하는 경우' 등이다. 예장합신은 또 산하 교회에 매주 '동성애 바로알기' 정보를 제공하며 노회 및 지교회에 동성애 강의 및 홍보 자료를 배포키로 했다.

예장고신 총회(총회장 김상석

목사)는 산하 신학교인 고신대 신대원 교수들이 동성애 관련 신학 가이드라인 제공을 위해 1년간 연구토록 했다. 예장대신 총회(총회장 유종국 목사)는 동성애 반대 관련 성명서를 채택하고 "개정 헌법에 '성 평등' 조항 신설을 반대하며 그동안 동성애를 옹호·조장한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화 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총회장 안희복 목사)는 '동성혼 합법화 반대 결의'를 통과시키고 '동성혼 합법화와 균형법 92조 6 폐지'에 반대하는 100만인 서명운동 전개에 동참키로 했다.

반면 동성애에 비교적 관대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총회장 윤세관 목사)에서는 '성소수자 교인 목회를 위한 연구 위원회 구성과 활동' 현의 안이 기각됐다. 개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동성애 문제에 대한 정체성이 혼란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합동 '2년 유예' 건의... 대신·합신 '생활비만 납세'

(2) 종교인 과세

올해 주요 교단들의 정기총회에서는 종교인 과세 문제가 뜨거워 감자'로 떠올랐다. 정부가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본격 시행키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교단별로 '납세 대비' '2년 유예안' '부분적 납세 이행'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이 제시됐다.

정부가 다음 달 말까지 종교인 과세 시행 세칙을 확정키로 함에 따라 세부안을 두고 교계 내부 및 교계·정부 간 조율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교단과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 등은 종교인 과세 시행을 전제로 사실상 준비 작업에 나서는 분위기다. 예장통합총회는 이미 지난해부터 지역별 '종교인 소득세 관련 세무교육'을 이어오는 한편 총회 사이 비교육원 홈페이지에는 '종교인

소득세 관련 세무실무교육' 온라인 강의를 올려놨다.

대표적인 보수 교단으로 꼽히는 예장고신도 제도 시행을 예상하고 관련 설명회를 준비 중이다. 기침총회는 이번 총회에서 국제청 관계자를 초청해 과세 관련 설명회를 가졌다.

반면 예장합동총회는 내년 시행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총회에서 '종교인 과세 시행을 2년간 유예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국회에 건의키로 했다. 또 관련 연구를 담당하는 총회 목회자담당문제대책위원회(납세대책위)를 1년 더 유지키로 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 시행안은 과세 대상과 범위 규정이 불명확하고 갈등 소지가 다분하다는 이유에서다.

납세대책위원장인 소강석 목사는 "종교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된 사회에서 세무 당국이 종교계와 소통 및 협의 없이 과세 시행을

강행하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라며 "과세가 시행되더라도 부당한 탈세신고와 과도한 세무조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부분적 납세 의지를 내비친 교단도 있다. 예장합신의 경우, 자신(목회자)이 시무하는 교회로부터 '개인 생활비'로 수령하는 사례금에 대해선 납세 의무를 이행키로 결의했다. 이와 함께 기타소득세 체계의 '종교인소득' 조항은 삭제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키로 했다.

예장대신총회는 총회 결의를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종교인 과세가 아니라 감중근로소득세율로 자발적 납부키로 결정했다. 교회에서 받는 월정 생활비에 대해서만 납세하겠다는 입장으로 정부의 기

합동·통합 등 장로교단 한기연 가입 '인준'

(3) 교회연합·이단 대책 등

올해 주요 교단 정기총회에서는 한국교회의 '하나 됨'에 대한 총대들의 의지가 었 보였다. 또 여성 목회자 및 영·유아에 대한 교회 내 권익이 일부 확대되는가 하면 이단·사이버 문제에 대해서도 강경한 정통교회의 입장이 유지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대신교단은 지난달 정식 출범한 한국기독교연합(한기연) 인준 절차를 가장 먼저 완료했다. 양대 장로교단인 예장합동과 예장통합, 예장합신 총대들도 한기연 가입에 합류했다. 이에 따라 향후 한기연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간 통합 추진과 더불어 한국교회가 한목소리를 내는 데도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예장합동 총대들은 현재 활동 중인 교회연합기관인 한기총과 한국교회연합의 분열로 인해 특정 현안에 대한 한국교회의 공동 대처가 어렵게 됐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어 한기연 동참을 통해 예장합동이 교회연합사회의 주도적 역할을 감당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예장통합 내부에서는 '또 하나의 연합기관이 생겨나면서 불필요

타소득세 개념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신은 "총회 소속 모든 목회자는 자신이 시무하는 교회로부터 개인생활비로 수령하는 사례금에 대해 감근세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세금을 납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장대신 목회자는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를 '목회자 생활비'와 '목회자 활동비'로 구분하며 목회자 생활비에서 십일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감근세를 납부한다. 교회는 목회자 생활비를 목회자 통장으로 송금해 명확한 과세 근거를 남기기로 했다. 교회에서 받는 월정 생활비에 대해서만 납세하겠다는 입장으로 정부의 기

한 예산과 인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하지만 교회의 연합·일치에 우선순위를 두고 동참을 결정했다.

한기연 가입을 결의한 예장고신의 김상석 신임 총회장은 국민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교회 연합은 당연한 일이고 고신도 연합에 앞장서야 한다"며 "문제가 있다면 직접 들어가서 고칠 수 있다"고 말했다. 예장고신은 한기연 가입 문제를 임원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지난해 교계 안팎에서 이단 시비와 논란을 야기한 이들에 대한 주요 교단들의 판단도 눈길을 끈다.

가장 관심을 모은 건 동성애자 지지·옹호 논란을 빚은 임보라 목사(섬돌향린교회)에 관한 결정이다. 보수 진영으로 분류되는 교단 일수록 대응 수위가 높았다.

예장고신은 임 목사에게 이단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교단 소속 교회와 목회자, 성도의 관련 활동 참여를 금지했다. 예장합동 및 예장합신도 '참여 및 교류 금지'를, 예장대신은 '1년 연구' 결정을 내렸다.

이밖에 예장합동은 김성로 목사(춘천한마음교회), 이인규씨(감리교)에 대해 참여 및 교류를 금지하

고 김종일씨, 정동수 목사(사랑침례교회)에 대해서 1년간 예의 주시기로 결의했다.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다소 생소한 스웨덴의 기독교 신비운동가 임마누엘 스페텐보리는 이단으로 규정했다. 예장대신은 신육주씨(은혜로교회), 소에스터 목사(용인 우리제일교회), 인도요가 등의 이단성 여부에 대해 1년 더 연구키로 했다.

'교회 안에서 마술과 요가를 금지한다'는 예장통합총회 이단사 이비대책위원회(이비대위)의 판단은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마술 같은 경우, 현재 교회와 선교단체 등에서 전도 도구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장통합의 '여성총대 할당제' 수용은 주목할 만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교단 산하 전국 67개 노회에서 최소한 여성 총대 1명을 파송한다'는 안건이 통과된 것이다.

대표적 보수 교단인 예장고신은 여성 목사 안수 문제를 연구한다. 현재 여성 안수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 고신 측이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하게 된 것은 대표적 해외 교류 교단인 네덜란드 개혁교회(RCN) 때문이다. RCN이 지난 6월 목사, 장로 등에 대한 여성 안수를 전격 허용하기로 한 것. 이에 고신 교단도 고신대 신학대학원 교수회를 통해 1년 동안 이 문제를 연구키로 한 것이다.

영·유아들의 세례와 성찬의 문턱이 낮아진 점도 특징이다. 예장합동은 만 7-13세 어린이에게 '어린이세례'를 줄 수 있도록 했다. 현재까지는 2세까지 유아세례를 줄 수 있고, 유아세례를 받은 자가 만 14세 이상 되면 입교 문턱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3-13세에 해당하는 어린이들에게 '세례공백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6세까지는 유아세례를, 만 7-13세까지는 어린이세례를 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예장통합에서는 유아세례자들이 입교하지 않고도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유아세례를 받았더라도 입교해야만 성찬 참여가 가능하다.

사상 최대 연합기구 통합논의 본격화

한기연·한기총 '합의서' 발표, 교회연합 현재 상황·과제

한국기독교연합(한기연)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통합 논의를 본격화했다. 만약 두 기구의 통합이 성사된다면 성도들의 염원인 한국교회 일치와 사회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이 가능해진다.

'장·감·성·순·침' 한자리에 모일까

양측은 최근 '한국교회 일치'를 위한 '합의서'를 발표하고 '2017년 제정된' 7·7정관을 그대로 인정하며 그 이후 한국교회연합(한기연) 한기총 가입 교단은 그대로 인정하되 문제가 되는 교단은 재심의해서 받아들인다'고 합의했다. 또한 '새로 탄생되는 한기연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각 단체 대표회장이 책임지고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이 같은 원칙은 '이단을 배제하고 건전 교단을 중심으로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 한다는 교계 대수 정서에 따른 것이다. 합의서는 엄기호(한기총) 정서영(한교

남은 과제, 당위성 제시와 의사소통

그러나 현실적으로 통합 반대 정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한기총 내부에는 '한기총이라는 역사성과 상징성을 지켜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한 데다 '이탈했던 교단이 복귀하면 자연스레 하나 되는데, 굳이 한기연과 통합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다.

한교연에서도 한기연을 배제한 채 한기총과 1대1 통합을 추진하려는 시도가 감지되고 있다. 한교연 직원들의 승계 문제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오는 12월 한기연까지 출범하면 한교연 자체가 없어진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한기연 실무를 맡고 있는 모 목사는 "주요 교단들이 한국교회 일치를 바라며 9월 총회에서 한기연 가입을 적극 찬성했다"면서 "만약 이런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다면 해당 기구는 결국 도태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장고신, "동성애자 세례·결혼식 주례 금지"

교단소속 목사, 교수 등 중 동성애자나 옹호자는 자격 불인정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고신(총회장 김상석 목사)이 동성애자에 대한 세례와 결혼식 주례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교단 내에서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옹호할 경우 면직하거나 출교하는 등 무거운 처벌을 시행하기로 했다.

예장고신 총회 임원회는 29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호텔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2차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달 25일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반대 고신총회 성명서'를 낸 지 한 달 만이다. 예장고신은 현재 교단 차원에서 성명서에 의거한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반대서명을 진행하고 있다.

예장고신은 이번 성명서를 통해 성평등 조항 신설을 앞세운 동성애와 동성혼 합법화를 반대한다고 재차 밝혔다. 또 동성혼과 균형법 92

조의6 폐지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소속 교회들의 동참을 독려하기로 했다. 균형법 92조의6은 "군인이나 준군인과 항문 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명서에서 우선 주목할 내용은 동성애자에 대한 세례와 결혼 주례를 금지한다는 부분이다. 예장고신은 지난해 9월 제66회 총회에서 교단헌법 중 목사의 결혼 주례 대상에 '창조의 원리에 따라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자'라는 내용을 넣기로 결의했다. 이번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총회 결정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교단 입장을 대외에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2차 성명서에는 이외에도 1차 성

명서에 없던 강력한 조치들이 포함됐다.

대표적인 제재 조치로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옹호할 경우,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면직'이나 교단에서 쫓아내는 '출교' 등 엄중한 처벌을 내리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교단 산하에 있는 목사, 신학교 교수직원과 입학예정자재학생, 기관의 직원, 교회의 향촌직(장로 집사 권사) 중에서 동성애자나 동성애에 동조옹호하는 자는 그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 20일 예장통합 총회가 동성애자 및 동성애 옹호론자들이 교회 직원이나 신학교 직원이 되지 못하도록 한 결의와 동일한 내용이다.

예장고신은 앞으로 동성애의 문제점을 알리는 교육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교단에 소속된 교회에 대상으로 '동성애 바로 알기'를 주제로 동성애의 문제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초등학교부터 청년부까지 교회학교 구성원에게 동성애예방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기총·한교연, 종교인 과세 한 목소리

"세부 과세기준안 수용 못해...2년 유예해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과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이 종교인 과세를 향한 공동의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한국교회와 종교간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TF)가 주최하고 주요 교단장들과 한기총, 한교연,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가 함께 한 '종교인 과세 대책 특별 조찬회의'에서다. 회의는 서울 서초구 웨라톤서 울팔레스강남호텔에서 29일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연합 소속 교단장들이 함께 모여 종교인 소득 과세 시행 2년 유예안(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내 심의 검토 추후와 지난 10일 기획재정부 종교교계에 보낸 종교계별 종교소득

원천에 대한 세부과세기준(시안)에 대한 반대가 결의됐다.

엄기호 한기총 대표회장은 "기획재정부와 국제청과 잘 협의해 좋은 결과를 도출하자는 것이지 종교인 과세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한기총과 한교연이 하나 됐다는 소리만 들려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서영 한교연 대표회장은 "종교인 과세로 교인들이 신앙을 위해 자발적으로 헌금을 내 구제와 봉사를 하는 종교활동도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종교 활동에 침해를 받는다는 생각이 들면 반항이 거셀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강석 새에티교회 목사는 "종교

인 과세가 유예돼 그 기간 기저부와 소통해 원원할 길을 만드는 일이 첫째로 필요하다"이라며 "세부 과세기준안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하고 종교사상은 절대로 안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현제 한국교회법학회 회장은 "과세당국이 관내 종교인을 하나하나 만나 설명회도 하며 적극적으로 설명해야하는데 종교 대표자들을 만나 의견을 받는 정도밖에 하지 않고 있다"며 "실제로 세금을 내야 할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여론이 몰려 허겁지겁 시행하면 마찰이 생길 게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종교에 재갈을 물릴 수 있는 위험적 요소가 과세에 들어가 있다"며 "세무 당국이 직접 목사와 일선 교회를 세무 사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천지 반대 1인 시위 100일째 진행 중

"떨어, 돌아와라" 손수 편지 써서 경찰서 정보관에 제출

2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사찰재야. 서늘한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긴팔 외투를 입은 행인들이 곳곳에 보였다. "날이 쌀쌀해졌다"며 양손을 겨드랑이에 간 채 종종 걸음으로 지나가는 사람도 있었다.

행인들이 무심하게 스쳐 지나가는 동안 두 어머니는 "사이버 신천지에 빠진 딸을 구해주세요"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묵묵히 서 있었다. 김귀자(52·여)씨와 송진희(55·여)씨는 지난 5월 22일부터 종로구 청와대사찰재야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국민일보 6월 13일자 30면 참조)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시한부종말론에 빠져 돌아오지 않는 딸들이 무사히 귀가할 수 있도록 청와대에 탄원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시위어 나온 날만 쉼에 이날로 꼬박 100일

이 됐다.

이날 김씨와 송씨는 1인 시위 100일째를 맞아 청와대에 전하는 편지를 썼다.

김씨는 두 딸이 모두 신천지에 빠져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 행인들이 무심하게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애지중지 키운 두 딸이 신천지에 빠져 학업과 직장을 포기했다"며 "육체영생이라는 신천지의 허황된 교리를 믿는 딸들의 모습 때문에 잠을 못 이룬다"고 말했다.

그는 "신천지가 위장동아리 위장 봉사단체 무료영양 심리상담 등을 빌미로 정체를 숨긴 채 대학생들에게 접근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사기포교를 하고 있다"며 "수많은 가정이 신천지 때문에 파괴됐고 가족들이 처참한 고통을 겪

고 있다. 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가정들이 바로 서지 못하면 중국에는 국가도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송씨의 딸 A씨는 2014년 여름부터 신천지에 발을 들였다. 송씨는 A씨가 신천지에 다닌다는 사실을 2년이 지나서야 겨우 알게 됐다. A씨가 어머니를 포교하는 과정에서 신천지라는 사실이 들통 났다.

지난해 7월 송씨는 A씨와 함께 카페에 들렀다가 A씨의 지인인 기도원 왕장 B씨를 만났다. B씨는 자신이 신천지에 빠져 학업과 직장을 포기했다"며 "육체영생이라는 신천지의 허황된 교리를 믿는 딸들의 모습 때문에 잠을 못 이룬다"고 말했다.

B씨는 송씨의 영적 상태를 보니 어두운 그는 속에서 울고 있는 아이가 보인다고 말하며 접근을 시도했다. 이후 B씨는 송씨의 집에 찾아와 직접 귀에 침을 놓기도 했다.

교도소 선교칼럼 (30)



교도소 교목, TPPM대표
이영희 목사

슬픔에서 얻은 교훈

교도소에서 만난 재소자중에서 기억에 꼭 남는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얼굴과 몸 전체가 문신으로 가득한 36세의 에릭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에릭이 독방에 있었을 때 저는 그에게 신앙 서적을 건네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독방에서 나온 후 교도소 목사님과 꼭 나누어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그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에릭으로부터 놀라운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보통사람이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로 모질고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그는 마약에 찌들어 자신을 성폭행하던 부모를 견디다 못해 9살 때 범죄 조직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부모를 살해하였으며 그것으로 인해 그는 험악한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모와 같이 악한 부모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은 믿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곤 했지만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며 범죄 조직에 속해 마약을 팔아 교도소를 들락거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에릭은 교도소에서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자칭하는 재소자들을 특히 싫어했습니다. 그는 늘 자신의 절망적인 삶을 하나님 탓이라고 생각하며 절망 속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과 논쟁을 해서 이기고자 궁리한 끝에 26살이 되던 해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적을 이기려면 적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시작한 성경 통독은 그가 상상하지 못했던 마음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에릭은 성경을 읽으며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성경을 읽으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까지 느꼈으며 그는 그 내면의 소리를 그냥 넘겨 버렸습니다.

그 후 10년 동안의 그의 삶은 끝

임없는 상처와 아픔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의 딸은 매춘부로 일을 하다 살해를 당하고 또 다른 딸은 마약과다복용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러던 2017년 9월 20일에는 17살이 된 그의 아들이 캘리포니아에서 무기징역 형을 받았습니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형을 받은 다음날 감방에서 목을 매 자살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처절한 상황에서 에릭은 배운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면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서 벗어나면 누구나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삶을 살다가 잘못된 길로 갔다고 말했습니다.

교도소 재소자들 중에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자살을 하므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나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 갔다고 원망하며 믿음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고통 속에서 헤매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에릭은 아들의 죽음에 대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죽음을 통해서 배운 교훈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제까지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아들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들의 죽음이 자신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 이야기를 하는 에릭은 슬픔에 잠긴 얼굴이 아니라 평안과 소망에 찬 얼굴이었습니다. 에릭이 상상감과 슬픔 속에서 헤매리라고 생각했던 저의 예상과 달리 그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큰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에릭은 그 짧은 시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범죄 조직에 더 이

상 가입하지 않겠다고 하자 재소자 중 두 사람이 자신들도 범죄 조직에는 더 이상 가입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 물어 봤나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만약 내가 할 수 있다면 자신들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어요.”

에릭은 더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하나님이 기도모임을 인도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인도하는 기도모임에 누가 참석을 할까하는 의식이 들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했으니 순종해야 하는 마음으로 기도모임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18명이 기도모임에 참석을 했어요.” 그 말을 하는 그의 얼굴은 기쁨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순종이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생각이 들었고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거의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어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은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앙 서적들을 에릭에게 전해 주며 간증을 나누준 것에 대해 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예배에도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장기간의 형을 받는다 해도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삶의 폭풍 속에서 배운 교훈을 실천으로 옮기는 에릭을 통해서 저는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니다.

다음날 그를 만났을 때 에릭은 하나님께 기도한 교도관에게 말하라고 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교도관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도관이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전에 경찰들을 미워하던 에릭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결정한 후에는 그의 생각이 바뀌어졌다고 합니다. 이제는 경찰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들도 하나님이 필요하면 사람들이라는 마음이 들어 왔다고 합니다.

에릭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있으며 그분을 섬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교도소 선교로 불러주시고 에릭과 같은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변화를 보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에릭과 같은 사람을 변화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yonghui.mcdonald@gmail.com



PGM선교회 제3대 정책이사장 취임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PGM선교회 제3대 정책이사장 취임예배 고훈 목사 “하나님 뜻으로 알고 사랑과 겸손으로”

세계전문인선교회(이하 PGM 선교회) 제3대 정책이사장 취임예배가 9월 25일 뉴욕하운교회(담임 고훈 목사)에서 열려 제3대 정책이사장 고훈 목사에게 취임패를 전달했다. PGM 선교회는 1998년 하나님께서 국제대표인 호성기 목사에게 부여하셨던 선교회의 제4결별비전으로 설립된 후 제 1대 정책이사장 양춘길 목사(뉴저지 필그림교회 담임), 제2대 정책이사장 고정인수 목사(전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 담임)에 이어, 지난 2016년 9월 고훈 목사(뉴욕하운교회 담임)를 제 3대 정책이사장으로

선임했다. 제 2대 정책이사장인 고정인수 목사가 이사장 임기 중이던 2016년 4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 PGM 정책이사회의 만장일치로 40대인 고훈 목사가 이사장으로 추대되면서 선교회의 새로운 세대교체를 이루었다. 고훈 목사는 뉴욕효신장로교회 부목사, 알래스카 원주인 선교사로 사역하고 2006년 7월 뉴욕하운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해, 부임 당시 20여명 교인의 개척교회 수준이었던 뉴욕하운교회를 현재 약 100여명 교인, 20여개 소그룹으로 성장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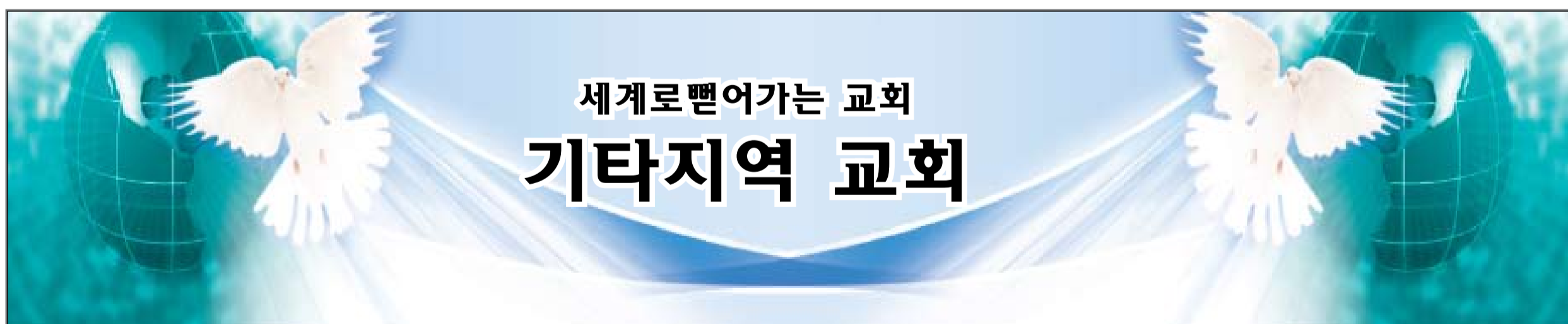
‘골목길 걸을 때’ 부른 한국 CCM 1세대 찬양사역자 이성균 목사 소천

한국 CCM 1세대 찬양사역자 이성균 목사가 9월 27일 소천했다. 향년 56세. 한양공대를 졸업하고 한국 CCM 1세대 사역자이자 핑거스타일 기타리스트 뮤지션으로 활동해왔다. 고인은 1989년 제8회 극동방송 주최 전국 복음성가 경연대회에서 ‘골목길 걸을 때’로 인기상과 장려상을 수상했으며 1991년 1집 ‘골목길 걸을 때’, 92년 2집 ‘하늘로 띄운 노래’, 97년 ‘내일일은 내일 염려하라’와 4집 ‘Follow

the Lord’를 출판하는 등 찬양사역자로 활발히 활동했다. 특별히 ‘골목길 걸을 때’는 한국 CCM계의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으며 1989년 6월부터 1000여 회 가 넘게 집회를 통해 복음을 선포하며 찬양과 연주를 했다. 문화 카페 ‘아름다운 땅’의 문화공연 기획 프로듀서로 예수전도단, 부흥 한국, IVF 등의 선교단체들 프로젝트에 예배 협력사역과 연주를 했고 목회자로 콜링을 받은 그는 2002년 신학공부를 하기

위해 미국유학길에 올라 2002년 달라스의 CFNI ‘School of Worship’를 졸업하고, 2003년 시카고의 에phant교회에서 음악디렉터로 사역했다. 그 후 LA의 월드미션대학교에서 목회학석사(M.Div)를 마치고 2008년 ECA복음주의교회연합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았다. 대표곡으로는 “그리스도의 계절-민족의 가슴마다”, “골목길 걸을 때”, “나는 보기 원하네”, “나의 기도”, “내가 아는 한 사람의 사는 법” 등의 곡이 있다. 1993년 백수임과 결혼, 이도경과 이도원 1남1녀를 두었다. (박준호 기자)

원은 주민들이 보여준 뜨거운 지지(92%)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앞날 유전 지역을 차지하고 있고, 주변 국가들에 흩어져 살고 있는 쿠르드족의 대동단결을 촉진시킬 수 있는 독립국가 형성을 반갑게 맞이해주는 이웃 국가가 없다. 물론 미국의 지지를 받고 있는 쿠르드족이 있지만, 실제 독립국가 형성에는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그 시간 안에 과연 무력 충돌이나 폭력 없이 평화롭게 전개될 것이라고 보는 낙관적인 예측이 없다. 그래서 또 다른 제왕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결국 쿠르드족의 독립국가 염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오후예배: 오후 7: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 오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Las Vegas, NV 891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omychurch.org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열 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오후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벤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영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http://www.bethelchurch.org/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일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회: 오후 8:00 수요예배: 오후 8:00 영, 위, 유, 난, 종교동부: (주일)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샬럿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 아침예배: 오전 10:45 토요새벽기도: 새벽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00 수 오 예 배: 오후 8:00 주일, 유, 난, 종교동부: 오전 10:45 /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 Tel: (704)877-6642, (704)529-0900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예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수요찬양예배: 오전 8: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ccseattle.org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702)749-9929, Fax: (702)778-6876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ljrb.org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시애틀: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ljrb.org	앵커리지베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예배: 오전 11:00 주일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http://www.bethelchurch.org/	엘파소열린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Tel: 교회(915)755-1490, 사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성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전 8: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킬린노드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현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청년모임: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Tel: (254)634-8705(H), (254)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15 수요찬양: 오후 7:45 새벽기도: 오전 6:00(토) www.jkc.org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2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3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 오 예 배: 오후 7시 새벽 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월-토) Tel: (253)536-86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lacmccrc.com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찬양: 오전 11:00 청년예배: 오전 7:45 금요기도회: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j.org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지구촌 뉴스

이란, 아프간 난민아동 시리아내전 전사 투입

이란이 정정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도망해온 난민의 자녀들을 시리아 내전에 전사로 투입한 혐의가 있다고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 워치(HRW)가 주장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지난 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 단체 조사원이 이란에 있는 묘지를 조사한 결과 시리아에서 전사한 것으로 보이는 14세에서 17세 사이의 어린이 8명의 묘비를 확인했다면서 8명 모두 인근 아프가니스탄 난민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아프가니스탄 전투요원에 대한 청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이란의 정예 혁명수비대가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지원병으로 모집하면서 연령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난민가족들이 자녀의 나이를 속

인 사례 등을 확인했다고 소개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이란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도망해온 어린이들을 시리아 내전에 전사로 투입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하고 사실일 경우 국제법상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정불안을 피해 이란으로 건너온 아프간 난민이 250만명에 이르며 이들은 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얻지 못하는 어려운 생활환경 때문에 지원병 모집에 응하고 있다면서 유엔이 시급히 조사를 나설 것을 촉구했다고 NHK가 전했다.

귀국길 北노동자 급증...中, 비자만기 연장불허 여파

최근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한 대북 제재에 의거해 중국 내 북한 노동자들의 비자 발급 규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북-중 접경지역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무더기로 귀국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베이징 소식통 등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북한 노동자들의 비자 연장을 불허하고 신규 발급을 억제할 때 이어 지난달 28일에는 북한 기업에 대해 120일 이내 폐쇄 지시까지 내림에 따라 짐을 싸서 떠나는 북한 노동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달에만 동북 3성(랴오닝·지린·헤이룽장)에서 2천600여 명이 귀국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난 4월부터는 중국 내 북한 식당 여종업원에 대해서도 비자 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위반 사범을 북한으로 송환해왔는데 이번 중국 내 북한 기업 폐쇄에 북한 식당도 포함됨에 따라 여종업원들의 귀국이 더욱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소식통은 "올해 초까지만 해도 단둥(丹東)에만 북한 노동자가 2만 명 넘었으나 최근 중국 당국의 제재가 강해지면서 급격히 줄었다"면서 "단둥 기자역과 출입국 사무소를 가 보면 귀국하려는 북한 노동자 행렬을 볼 수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달에만 동북 3성(랴오닝·지린·헤이룽장)에서 2천600여 명이 귀국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위챗(微信·중국판 카카오톡) 등 중국 온라인에는 북한 여성 수백 명이 단둥에서 귀국을 기다리는 모습이 나돌기도 했다.

미국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를 위주로 북한 노동자가 전 세계에 10만 명 정도 파견돼 매년 5억 달러를 벌어들여 김정은 정권의 주요 외화벌이 창구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 내 북한 기업과 합작 기업 등에 대한 폐쇄 통보의 영향에다 중국의 황금연휴인 국경절·중추절 연휴(10월 1-8일)까지 겹치면서 중국 내 북한 노동자들의 귀국이 부쩍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당국은 최근 들어 랴오닝(遼

寧) 단둥과 지린(吉林)성 연변자치주 연지(延吉) 등의 수산물 가공, 의류 및 전자부품 공장에서 근무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비자 기한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기한이 만료된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귀국하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은 최근 들어 랴오닝(遼

페이스북, '가짜' 파문 때마다 대규모 신규채용 발표

가짜 뉴스에 이어 미국 사회의 분열을 증폭시키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긴 가짜 광고 파문이 페이스북을 강타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미국 대선을 전후해 극단적인 이슈를 홍보함으로써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된 정치광고 3천여 건이 러시아와 연계된 허위 계정들 통해 게시된 사실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페이스북은 2일 이와 관련된 자료를 미국 상·하원 정보위원회에 제출했다. 제출 자료에는 러시아 연계 광고 카피는 물론, 해당 광고가 누구를 겨냥한 것인지, 또 비용은 얼마나 들었는지 등의 세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페이스북은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로버트 뮐러 특별 검사팀에게도 자료를 제출했다.

가짜 광고는 페이스북의 자동화된 광고 플랫폼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페이스북 측은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1년 동안 1천 명의 광고 인력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자동화된 광고를 모니터링하고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는 광고를 걸러내기 위한 대규모 검토 인력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머신 러닝을 통해 자동 악성 광고를 탐지할 수 있는 알고리즘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페이스북의 발표가 웬지 익숙하게 들린다"며 지난 5월 페이스북이 자살이나 살인을 생방송 한 일련의 사건들이 터졌을 때 이를 수습하기 위해 했던 반응과 거의 똑같기 때문"이라고 논평했다.

당시 페이스북은 콘텐츠를 모니터링하는 요원 3천 명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가짜 파문이 터질 때마다 대규모 신규 채용 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는 것이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이런 조치가 너무 때늦었다는 점을 무시하더라도 페이스북의 발표에는 여전히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가령 이들 신규 채용인력이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그리고 그들이 근무하는 곳은 어디이며, 어떤 훈련을 받고 무엇을 모니터링 할 것인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김한솔 피신 美·中·네덜란드 도움...과정서 방해시도 있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지난 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암살된 직후, 아들 김한솔(22) 측이 여러 국가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김정남의 둘째 부인 이해경과 자녀 김한솔·솔희 남매의 피신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천리마 민방위'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당시 마카오에 머물고 있던 가족들은 김정남 피살 직후 천리마 민방위와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리마 민방위 관계자는 "몇몇 국가들에 이들의 보호를 요청했지만 실망스럽게도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미국·중국·네덜란드는 도움을 제공했지만, 캐나다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은 신변 보호 요청을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캐나다의 경우 북한에 억류됐다가 지난 8월 풀려난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의 석방 협상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해석했다.

앞서 '천리마 민방위'는 지난 3월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한 시기에 한 가족의 인도적 대피를 후원한 네덜란드 정부, 중국 정부, 미국 정부와 한 무명의 정부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피신 과정에서는 대만 타이베이(臺北) 공항을 최초 경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최종 목적지의 입국 사증(비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긴장 속에 30여 시간을 타이베이 공항에서 보냈다"면서 "피신 과정에서도 몇몇 단체들의 방해 시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김정남 피살 직후에 아들 김한솔 역시 위험한 상황에 놓였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김한솔의 당시 최종 목적지는 물론, 현재 은신처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4면에서 계속>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죄악상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이 변질될 대로 변질되어 완전히 형식과 외식, 인본주의만 남았습니다. 율리와 도덕이 다 무너졌습니다. 세금을 누탈하고 군인들은 강포하고 백성들은 무지했습니다.

다. 무엇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옳은 지도 모르고 선동하는 세력에 쉽게 동요되는 철세적 기질만이 남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성을 깨우는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성을 깨우는 메시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 길라잡이

이영직 내과전문의

구토증

구토와 동반되는 다른 증상에 따라 원인 질환 찾도록

구토(vomiting)는 위장관의 질환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매우 불편한 증상이다. 구토 후에 증상이 완화될 수도 있지만 불편함이 계속될 수도 있다. 또 음식을 섭취할 뒤에 구토 증상이 유발되는 경우도 있다.

정신적으로 일어난다. 이때 어느 작용에 이상이 나타나게 되면 매스꺼리는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구토를 하게 된다.

-60대 초반의 남성 박 모 씨는 새벽에 전화를 받기 위해 일어났다가 심한 어지럼증과 함께 구토 증상이 나타났다. 어지러움과 구토증상이 너무 심해서 자리에 누워 있다가 두 시간이 지난 후에야 움직일 수 있었다.

구토와 동반되는 다른 증상에 따라 구토를 유발하는 원인 질환을 찾을 수 있다. 첫째, 구토와 함께 복통이 동반되면 담석증이나 위궤양 등의 상부 위장 관계의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장염에서도 흔히 복통과 함께 구토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급성 복통인 경우에는 외과적인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20대 후반의 여성 김 씨는 새벽에 속이 심하게 쓰러면서 속이 매스꺼리는 증상이 3주 동안 계속되었다. 평소 위가 약해서 자주 속 쓰린 증상을 경험했는데 최근에 스트레스가 심한 직장으로 옮기면서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것을 느꼈다.

둘째, 구토와 함께 복부가 불러오면 장폐색을 의심할 수 있다. 특히 장관 수술을 한 병력이 있는 경우는 가능성이 높다.

이들 사례에서 김 씨의 증상은 위궤양이나 위염과 같이 흔한 위장 질환으로 일어난 구토이지만 박 모 씨의 증상은 전정기관의 이상으로 인한 구토 증상이다. 이처럼 같은 구토 증상이라도 그 원인이 전혀 다를 수 있어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때로는 매우 중요하다. -

셋째, 아침 일찍 일어나는 구토 증상은 임신 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가임기 여성은 임신여부를 검사해 본다.

위장 운동은 중추신경계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다음의 단계에서 조절이 일어난다.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 같은 중추신경계와 장신경계, 평활근육 세포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장운동이

넷째, 구토할 때 대변 냄새가 나는 경우는 소장이 막혀서 그럴 수도 있다.

다섯째, 구토와 함께 심한 어지럼증이 동반되는 경우는 전형적인 내이(內耳)질환 때 발생한다.

여섯째, 급성 뇌졸중이나 뇌졸중이 커서 뇌압을 상승시킬 때도 구토를 할 수 있는데 한쪽 팔다리에 힘이 없거나 시력에 이상이 있는 등 다른 신경계통의 이상 소견과 함께 구토가 있을 때는 이를 의심해 본다.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응급한 상황이므로 급히 의료기관을 찾도록 한다.

kkwon2002@hanmail.net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주최

제3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3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 방법:** 추천도서 4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며 분량은 레터 또는 A4 사이즈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 마감은 2017년 10월 1일 오후 5시(미 서부시간 기준)
-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 시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1,000, \$5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상이 주어집니다
*이미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 도서

당신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유석경 저/구장 | 광야의 소리, 윤종하 성서유니온 | 나는 아메리카의 한국인입니다 김준자 역/도서출판 모시는 사람들 | 감사 플러스 긍정 플러스 이영훈 역/아름다운 동행

회원사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교신문(시애틀, 미국), 미주기독교방송(LA, 미국), 미주복음방송(애나하임,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아멘넷(뉴욕, 미국), 유럽 크리스천신문(프랑크푸르트, 독일), 크리스천 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천 월드(토론토, 캐나다), 크리스천 리뷰(시드니, 호주), 크리스천 포스트(토론토, 캐나다), 크리스천 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 크리스천 투데이(LA, 미국), 크리스천 위클리(LA, 미국), 크리스천 헤럴드(LA, 미국).

후원

기독교서점협회(회장 전인철 목사, *도서 구입처), 로고스 선교회(회장 박도원 목사)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두란노서원 213-382-5400 www.duranno.us 말씀사 714-530-2211 www.lifebook.co.kr 베델서적 949-854-9191 bethelbook@hotmail.com 조이서적 213-380-8793 www.joyla.com

주최: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회장 장영춘 목사)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제 19강 사모와 자기훈련

사모가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끊임 없는 훈련 과정을 통해 자신의 영적 성장과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1. 영적훈련(영성훈련)

사모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들어가도록 끊임없이 영성을 개발해야 한다. 성령의 역사는 남편 목사의 설교말씀 선포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1) 무릎 꿇는 훈련(기도의 훈련)

목회는 영적인 일이다. 그러므로 영적인 일은 기도 없이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매일 정해진 시간에 꼭 갖도록 한다.

대중적인 공중예배가 아닌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조용한 교제의 시간을 규칙적으로 갖는 훈련이 필요하다.

필자가 남편의 목회 사역을 돕는 과정에서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고 헤아 나올 수 없는 깊은 웅덩이에 빠질 때도 있었다.

평소 애는혜가 되고 힘이 되었던 말씀들을 카드로 만들어 목사님과 함께 묵상하고 암송했다.

고난과 역경으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평소 애는혜가 되고 위로가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포스트잇에 매직으로 써서

가 무엇인지 발견하여 그 은사를 개발하고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

몸 된 교회와 성도들을 섬김으로 남편 목사의 목양과 교회 발전 부흥에 한 몫을 감당하는 훌륭한 '에제르'로서 보람을 느끼고 승리하는 사모가 되어야 한다.

2. 실생활의 훈련

1)남을 대접하라는 황금률을 실천하는 훈련

"목회란 곧 대인관계이다"라고 할 정도로 목회 현장에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그들과의 좋은 관계성을 유지해야 한다.

황금률은 마태복은 7장 12절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며 선지자니라."

최고의 에제르가 된다 (28)



이희숙 사모

다. 더군다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태클을 걸어서 우리를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기를 원한다.

필자는 목회하면서 자녀양육의 문제, 교회의 어려운 문제, 또한 성도들 중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라는 싸인으로 알고 무조건 성전으로 나가 무릎을 꿇었다.

'한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시 50:15).

2)말씀을 가까이 하고 암송하는 훈련

성경통독은 적어도 1년에 한번 하도록 하되 큰 소리로 읽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필자가 남편의 목회 사역을 돕는 과정에서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고 헤아 나올 수 없는 깊은 웅덩이에 빠질 때도 있었다.

필자가 남편의 목회 사역을 돕는 과정에서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고 헤아 나올 수 없는 깊은 웅덩이에 빠질 때도 있었다.

그리고 그 말씀에 필자 자신의 이름을 넣고 큰 소리로 몇 번씩 읽고 선포하면 놀람게도 필자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던 불안과 걱정, 근심과 두려움, 분노 등 부정적인 생각들이 다 물러갔다.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면 "하나님이 보여야지요" 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요1:1).

3)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고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

성령님은 성도들을 몸 된 교회의 지체로서 쓰시기 위해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

2)언어의 혁명과 구체적인 훈련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약 3:2).

사모의 말이 목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히 크다. 왜냐하면 사모의 말의 실수 중 상당부분은 남편 목사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hslee39@sbcglobal.net

매일가정예배

허운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월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으며(삼하19:8)

압살롬이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러나 슬퍼만 하지 말고 일어나 충신들을 위로하라는 요압의 충고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울기도 하시고 모든

아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치료해주셨습니다. 사람들로 인해 힘들 때도 많고 고생도 많으셨습니다.

화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여(삼하19:8-12)

다윗이 성문에 앉아 일을 시작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왕을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들입니다. 참신한 사람들이 다윗왕을 왕궁으로 빨리 돌아오도록 힘을 썼습니다.

수 왕은 모든 신복으로 더불어 돌아오소서(삼하19:13-15)

본문 교훈에서 단합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인 연합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서 충성을 한 장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요압을 대신해 반역에 가담했던 아마사를 군대 장군으로 세우겠다고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목 베나민 사람 일천명이 저와 함께 하고(삼하19:16-23)

본문의 교훈은 성도는 항상 진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므이와 시바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맨발로 울며 광야로 갈 때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며 온갖 저주를 퍼붓던 사람입니다.

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다윗을 마중 나온 것입니다. 다윗이 약하고 힘이 없을 때는 온갖 욕을 하고 나쁜 짓을 저지르던 다윗이 왕궁에 돌아오니까 가장 먼저 아부하는 것입니다.

금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삼하19:24-30)

본문은 성도는 평생 신앙의 의리를 지켜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므비보셋은 시바의 참소와 이간질로 말미암아 본의 아니게 다윗에게 미움을 산 사람입니다.

바에게 모함을 당해 가지도 못하고 재산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므비보셋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때도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켰습니다.

토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삼하19:31-39)

본문은 바르실래의 아름다운 인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르실래는 길르앗의 거부였습니니다.

기중심적으로 돈을 쓰기 쉽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Worldwide Church Directory (해외교회)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pastors across different regions like Kumran, Roman Catholic, etc.

특별기고



정부홍 박사 (에드워즈아카데미원장 및 예일대 에드워즈센터 연구원)

왜 조나단 에드워즈를 연구하는가?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 1703-58)는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북미 대륙 매사추세츠 플리머스에 1620년 도착한 이후 약 80년이 지났을 무렵인 1703년에 코네티컷 하트포드에서 약 10마일 위에 위치한 이스터 윈치에서 태어나, 영국으로부터 뉴잉글랜드(13개주로 된 신영국)가 1776년에 독립하여 미국을 건국하기 약 20년 전까지 살았던 인물로서 예일대 교수, 목사, 선교사, 그리고 학장으로 살았던 인물이다. 사후에는 그를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신학자, 철학자, 윤리학자, 그리고 심리학자였다고 평가한다.

역사 과목에서 반드시 읽고 공부하는 것이 에드워즈의 저서들과 사상이다. 사실, 필자는 이런 사실들과 평가들을 전혀 모른 채, 1986년 대학 3년 때 필독서여서 읽게 되었는데, 바로 그 책이 에드워즈가 목회했던 하트포드에서 차로 1시간가량 북쪽 올라가면 나오는 매사추세츠 주의 노스앰튼 마을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변화 받고 회개하는 사건을 기록한 '놀라운 회심 이야기 (Faithful Narrative of the Surprising Work of God, 정부홍역, 기독교문서: 1997)'이라는 작은 책이었습니다. 이 책 서문에서 필자는 다음같이 소회를 남겼다.

해서 다시 좀 더 그 가정의 내력을 좀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그의 증조부 윌리엄 에드워즈는 런던에서 교구 목사였으나 전염병에 걸려, 그의 아내와 아들 윌리엄을 남겨두고 죽은 다음, 그 아내는 나무술 통이나 용기를 만드는 기술자(cooper)와 재혼하고, 그 아들을 데리고 1640년경 코네티컷 주 하트포드로 이민을 온다. 그 아들은 결혼하여 리처드를 낳았는데 장성하여 장사를 하여 유력한 부자가 되었다. 그리고 결혼을 하였는데 그 부인은 3개월 만에 바람을 피워 임신을 하고 아기는 그 친정에서 데려가 키웠으며, 그런 부정을 계속하고, 감정을 폭발하고, 하룻

로서, 당시 '코네티컷 계곡의 교황'이라 불릴 정도의 영향력을 지닌 솔로몬 스타다드 목사의 딸이었다. 따라서 에드워즈의 친가와 외가 모두 훌륭한 청교도 목회자 가운데서 교육받고 성장했다. 에드워즈는 11남매 가운데서 5번째로 그리고 독자로 태어나, 13세에 예일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 아버지 디모데에게 학습을 받았는데, 그 당시 마을의 교사로 워낙 잘 가르쳐서 소문이 하버드까지 날 정도로 그에게 배운 아이들은 묻지 않고 입학시켜 주었을 정도였다. 그러니까 에드워즈는 그 당시 가장 훌륭한 교사에 사사를 받아 기초 지식과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와 같은 고전이 배웠다. 그리고 집에서 어머니 에스터와 4명의 누나들로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니다. 예일대학 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이어 20세에 석사학위를 받은 후, 20-21세 때 뉴욕장로교회에서 8개월, 볼턴에서 6개월 동안 작은 교회에서 목회 경험을 쌓는 동안, 21-23세(1724-1726)에 예일대학으로부터 교수

를 받고 종교와 내 구원에 대해서 걱정하며 여러 가지 의무들을 행하였다. 하루에 5번씩 은밀한 기도를 하고, 다른 소년들과 함께 종교적인 대화를 나누며, 그들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 만나곤 하였다. 그러는 가운데 종교에서 알지 못하는 어떤 종류의 기쁨을 경험하였다. ...나는 친구들과 아주 멀리 떨어진 은밀한 숲속에 움막을 지었다. 그 외 나만의 특별한 은밀한 장소들을 두고서 홀로 자주 은거하며 마음은 감화되었다...". 이 경험은 그의 영적 회심과 새로운 감각과 지식을 갖는 첫 출발이었으며 이후 대학에 가서도 계속 되었으며 졸업한 이듬해에 고향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와 대화의 시간을 나누는 1721년 여름에 완전한 회심을 경험하였노라고 고백한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그는 학문적인 두뇌에 있어서만 천재성이

를 받고 종교와 내 구원에 대해서 걱정하며 여러 가지 의무들을 행하였다. 하루에 5번씩 은밀한 기도를 하고, 다른 소년들과 함께 종교적인 대화를 나누며, 그들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 만나곤 하였다. 그러는 가운데 종교에서 알지 못하는 어떤 종류의 기쁨을 경험하였다. ...나는 친구들과 아주 멀리 떨어진 은밀한 숲속에 움막을 지었다. 그 외 나만의 특별한 은밀한 장소들을 두고서 홀로 자주 은거하며 마음은 감화되었다...". 이 경험은 그의 영적 회심과 새로운 감각과 지식을 갖는 첫 출발이었으며 이후 대학에 가서도 계속 되었으며 졸업한 이듬해에 고향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와 대화의 시간을 나누는 1721년 여름에 완전한 회심을 경험하였노라고 고백한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그는 학문적인 두뇌에 있어서만 천재성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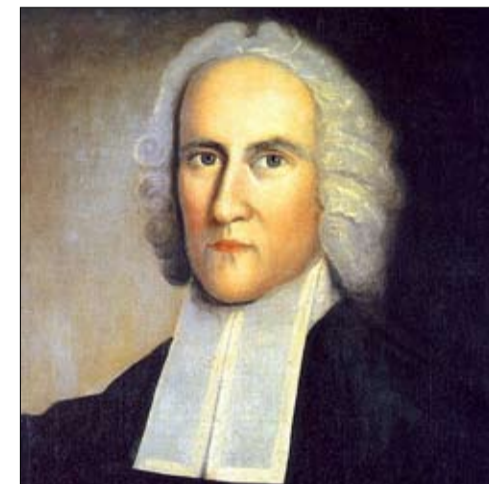
“미국이 배출한 가장 심오한 사상가이며 가장 위대한 신학자” “가장 겸손하고 가장 경건한 사람, 가장 탁월한 그리스도인”

1734, 1740년 영적 대각성의 주역... 미 독립과 건국 정신 토대 마련

“나는 이 책을 10회 이상 읽었다. 이 책은 영적 대각성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일을 내 뇌리에 새겨, 아니 내 영혼에서 지울 수 없는 또 하나의 사건이 되게 했다. 본서에 소개된 회심 장면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내 몸에서 전율이 흐르고 떨려 한여름에도 추위를 탈 정도이다. 그리고 내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게 되고 내 자신은 과연 구원에 이르는 회심을 하였는가 자문해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난 300년간 뉴잉글랜드를 넘어 현재는 아시아까지 그의 남긴 글들은 계속 영향을 끼치고 있다. 예로 한국에서는 1984년에 처음으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생애와 일기(윤기향 역)”과 “사랑과 그 열매(0)”이 번역 소개되었고, 필자도 본격적으로 에드워즈를 소개하고자 1996년에 한글 최초의 전기 “조나단 에드워즈의 생애”를 출간해 20여년전 에드워즈 관련 서적이 전무할 때 많은 이들이 참고로 하고 신학교 강의 교재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에서 보면 서둘러낸 것이라 조약한 것이다. 이처럼 에드워즈에 대한 관심 대량만이 아니었다. 에드워즈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

밤엔 남편을 칼로 죽이려 하거나 지 하는 여자였다. 그 뿐 아니라 그녀의 한 자매는 자기 아이를 살해하였으며 한 형제는 도끼로 자기 다른 자매를 죽이는 만행을 저지를 정도였다. 결국 그 부인과 이혼신청을 하였으나 거절당하고 몇 년 후 다시 신청하여 허락받고 나중에 재혼하였다. 어떻게 그런 시대에 그렇게 극악무도한 여자와 그런 사건이 있었으며, 더구나 그런 여인에게서 위대한 에드워즈의 위대한 아버지 디모데가 태어나 성장하였는지 믿어지지 않는다. 그 비밀은 리처드 에드워즈의 장례식에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나의 아버지”라는 조사를 아들 디모데가 읽었는데 그 속에서 부자간의 친밀한 관계를 엿볼 수 있다. 극악무도한 어머니 밑에서 자란 디모데가 자애와 경건이 있는 아버지 사이에서 에드워즈의 아버지 디모데가 나왔다. 그렇게 하여 우리 살피고보고자 하는 에드워즈의 아버지 디모데가 그 당시에 하버드 대학에서 아주 우수한 졸업생이 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가까이 있는 이스터 윈치 마을의 초대목사로 부임하여 그곳에서 63년 대목사로 목회하고 소천했다. 그의 어머니도 하버드대학을 졸업한 엘리트

초빙을 받았지만 2주 만에 사임하고 뉴헤이븐으로 가기를 좋아했다. 거기에는 예일대 도서관이 있어 비치된 책들을 읽고 자기 관심 분야 연구를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특히 아이작 뉴턴과 존 로크의 과학 철학 신학 서적들을 두루 섭렵하여 이미 천재적인 소질을 나타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관찰할 수 없는 것은, 이러한 좋은 환경의 가정과 부모를 잘 만나고 또 어떤 천재성을 자신이 발휘하고, 그리고 명문 학교를 거쳐 그런 특성이 그 개발되고 자기 전문 분야에서 특출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 위인들의 전형적인 전철일 것이다. 물론 에드워즈도 마찬가지로 그런 전철을 밟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필자가 보는 또 다른 한 가지는 그를 다른 위인들 중의 위인으로 만든 한 가지가 있다. 바로 그것은 어릴 때 여러 차례에 걸쳐 자기 영혼에 대해 걱정하며 부흥과 회심을 경험하며 어떤 실천들을 했다는 것이다. 훗날 자기 고백록(Personal Narrative)에 기록하기를 “나의 소년 시절, 대학에 가기 몇 년 전에, 내 아버지의 회중들 사이에 큰 각성이 일어났는데, 그때 나도 수개월 동안 감화



있었던 것이 아니라 종교적 측면에 있어서도 영적 신동으로 성장하며 체험한 것이, 그의 위대한 삶의 바탕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 이후 그는 예일대 설립자 중 한 사람이요 뉴헤이븐교회의 목사였던 제임스 피에르폰트의 딸 사라 피에르폰트와 결혼했다. 그 당시 시로씨는 일반적이지만 4세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형편상 대학 교육을 받지 못했을 것이지만, 에드워즈는 그녀가 비범한 여자였던 것을 일찍부터 알아 차렸다. 4년간의 연애를 한 후 1727년 2월에는 자기 외할아버지 솔로몬 스타다드가 시무하는 노스앰튼교회의 부목사로 인수 받고 7월에는 뉴헤이븐에서 결혼식을 하였다. 2년 후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담임목사로서 목회를 시작하며 1734년과 1740년에 두 차례 큰 부흥을 경험하였다. 그것이 미국교회사에 등장하는 가장 중대한 사건으로서 소위 “미국영적대각성”이다. 영국 청교도들이 미신대륙에 정착한 이후 100년이 지날 때, 이민 1세대들의 신앙심과 도덕성은 점차 쇠퇴하고 자유주의 신앙과 사상들이 만연하고 2, 3세대들도 그런 시류에 합류하여 신앙적 해이와 도덕적 타락이 창궐해가고 있었

를 받고 종교와 내 구원에 대해서 걱정하며 여러 가지 의무들을 행하였다. 하루에 5번씩 은밀한 기도를 하고, 다른 소년들과 함께 종교적인 대화를 나누며, 그들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 만나곤 하였다. 그러는 가운데 종교에서 알지 못하는 어떤 종류의 기쁨을 경험하였다. ...나는 친구들과 아주 멀리 떨어진 은밀한 숲속에 움막을 지었다. 그 외 나만의 특별한 은밀한 장소들을 두고서 홀로 자주 은거하며 마음은 감화되었다...". 이 경험은 그의 영적 회심과 새로운 감각과 지식을 갖는 첫 출발이었으며 이후 대학에 가서도 계속 되었으며 졸업한 이듬해에 고향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와 대화의 시간을 나누는 1721년 여름에 완전한 회심을 경험하였노라고 고백한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그는 학문적인 두뇌에 있어서만 천재성이

를 받게 되었다. 올바른 설교자들과 지도자들이 요청되어 유명대학들(프린스턴 1746), 다트머스(1769), 브라운(1764), 콜롬비아(1754)이 이 시기에 설립되었으며, 사회와 정치에 적극적 참여하여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지도자적 인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교파 교회의 분열과 다양한 교파의 출현, 인디언 선교운동과 사회봉사와 노예해방운동이 꽃을 피웠다. 이런 결과들은 미국 독립 정신과 건국 정신의 토대를 높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흥의 불길은 희미하고 또 탈선하여 갈 때 이미 화석화된 회중들은 22년간 수고하며 대각성으로 인도했던 에드워즈를 1750년에 230 대 23이라는 불신임으로 해임시켜서, 1556년 12월 프린스턴대학의 학장으로 초빙 받고 3개월 만에 천연두살림 주사를 잘못 맞아 죽기까지 차로 한 시간 넘게 서쪽에 위치한 스타브릿지 라는 인디언 마을에서 선교사 및 교사로 활동하며, 그곳에서 중요한 저작들 곧, “자유지의(새물결출판사, 2017) “원죄론”, “천지창조의 목적” 및 “덕의 참된 본성”을 남기게 되었다. peterbjung@gmail.com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선교목회학 DMin in Missions
설교목회학 DMin in Expository Preaching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517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I-20 발행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세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